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

(雨季不再來 - 한국어번역논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韓 海 珠

2017年 12月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

(雨季不再來 - 한국어번역논문)

指導教授 宋 咳 宣

韓 海 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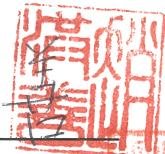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12 月

韓海珠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洪



委 員

金 中 慶



委 員

宋 咳 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7 年 12 月



차례

싼마오가 아직 얼마오였을 때/ 2

겁쟁이/ 7

취사병/ 14

책을 읽기 위해 땡땡이치다/ 26

혼란/ 47

상장/ 55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 61

싼마오^{三毛}가 아직 얼마오^{二毛}였을 때

내가 부끄러움도 없이 지난 열일곱 살에서 스물두 살 때까지 발표했던 글의 원고들을 모아 책으로 내고자 한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라는 책은 한 소녀의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엮은 책이다. 어찌면 문장의 기교면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이 혼란스럽고, 비애에 젖기도 하지만 분명 과거의 나였고, 오늘날 건강하고 진취적인 싘마오와는 확연히 다른 얼마오였다.

인간이 슬픈 건 우리가 세월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청춘은 어느 날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고귀한 것은 우리가 세월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삶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흐르는 세월을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시간의 힘이 인간의 점진적인 성장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사실이다.

싼마오가 얼마오였을 때는 반항아였다. 그녀는 모든 젊은이들이 스스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로 나타내지는 못했던 그런 감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얼마오는 어릴 때부터 효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부모가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당시 부모님의 지인들 눈에 문제아로 보였던 얼마오가 어떻게 십 년 후, 모든 일에 애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희망을 가진 여인이 되었는가? 싘마오 자신은 이를 아주 평범한 두 글자를 가지고 설명한다. ‘시간’

싼마오는 침대에 누워 흐르는 세월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며 흘러 보내지는 않았다. 십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정과 끝없는 유랑, 감정상의 풍파가 몰아치긴 했지만, 그 무엇도 얼마오 인생에 있어 가장 고귀한 청춘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않았다. 유수와 같이 흘러간 십 년 후에, 다시 펜을 드니 그 펜 끝에서 그려지

는 이는 더 이상 슬픔 많고 예민하며, 낭만은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았던 철없는 어린 내가 아니다.

나는 한 인간의 과거는 마치 <성경> 속 야곱의 사다리와 같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만으로는 하늘까지 다다를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은 한 칸 한 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비로소 어떤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곳까지 올라가면 아름다운 강, 바람, 달, 푸르른 산하가 한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경지에서 갖게 되는 마음은 분명 사다리 한 칸만 딛고 올라섰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단지 한 걸음만 내딛었을 때는 그 위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알 수 없어 온통 흐릿하고 당혹스러우므로…….

하지만 얼마오가 실제로 넘어졌었고, 길을 잃었었으며, 고통스러웠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젊은 베르테르’처럼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쓴 수기 원고를 잘 모으지 않았다. 발표된 글들은 한 번 보고 버리곤 했다. 만약 나를 아끼셨던 자상한 아버지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에 얼마오가 어떤 헛소리를 혼자 중얼거렸는지 다시 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결코 성숙한 작품이라 할 수 없는 글을 만약 다시 세상에 공개하게 되면 일반 독자들이 짠마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과소평가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차분히 분석해 보고, 이는 쓸 데 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집이나 당시의 얼마오 또래 아이들이 한 둘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 당시와 지금 청소년들이 자라난 환경, 사회 분위기가 이미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청소년기 아이들 누구에게나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똑똑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한 아이가 생명에 대한 탐색과 삶의 대한 가치를 때론 지나치게 집착하고, 온 힘을 다해 탐구했음에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생긴 결코 무시 못 할 아픔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수많은 날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원히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 할

수도 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하게 자랐고, 보통 청소년들이 겪었던 바보 같은 일들을 겪었다. 지금도 내 삶은 여전히 안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나의 인생관과 마음의 경지는 이미 한 단계 높은 곳에 도달해 있다.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에 대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나의 심경은 마치 아득한 하늘과 드넓은 바다와 같이 편안하고 욕심이 없다. 대인 관계나 행동에 있어서 순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활한 것을 경멸한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삶은 사람들이 함께 창조하는 것이기에 남이 없다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는 내가 살아온 과정이며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나의 과거이기도 하다. 이 글이 좋은 나쁜든 모두가 오늘날에 건강한 썬마오를 있게 만든 기초가 된 것들이다. 마치 옷의 재료처럼, 남아지면 남아진 대로의 멋이 있고, 재질 또한 처음에 방직기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의 날줄과 씨줄 그대로이다.

나는 나를 아끼는 독자들이 과거에 썬마오가 아직 얼마오였을 때의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오늘날의 <사하라 이야기>속의 썬마오와 비교해 보길 바란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 년이라는 세월이 온실 속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수많은 독자들이 편지로 “썬마오, 당신은 어찌면 이리도 낙관적인가요? 어떻게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전 정말 알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내가 나의 독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전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말 한 마디뿐이다.

낙관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 모두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다.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낙관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나는 이것을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는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아주 평범한 것이며, 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백퍼센트의 여자이고 싶다. 막연한 욕구들. 만일 나 자신의 욕심 없고 평안한 삶의 원칙을 지킨다면 나는 결코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나는 똑 같은 자세를 갖고 있다. 내가 유일하게 목숨 바쳐 노력하는 것은 나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이다. 내 생이 지속되는 한 성실한 사람이 되어 삶에 대한 애정과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유한한 시공 속에서 무한하고 광대한 날을 보낼 것이다. 만약 나의 이런 자세를 ‘낙관’이라고 인정해준다면, 나도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다.

다시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의 넓은 원고들을 한 편 한 편 읽어보다가 나는 마음이 조금 울적해졌다. 과거의 나는 비록 무언가에 빠져 들고 의기소침한 아이였어도 최소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고 세상을 조롱하지는 않았다. 실의에 빠졌을 때에도 탐구했다. 설령 당시의 감정들이 오늘의 내가 보기에 처참한 것일지라도 나는 그런 모습이 좋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 모습은 원치 않는다. 얼마오는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던 어린 여자였다.

간혹 나에게 썬마오와 얼마오 둘 중, 도대체 누구를 더 좋아하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둘은 같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어린 새 싹이 자라서 초록의 잎사귀를 낸 것일 뿐이다. 어린 싹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이런 조그마한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었겠는가.

그 시절의 나는 왕상이의 <광류>에 감동을 받았고, 또한 <홍일법사 전기>를 읽고 깊은 깨달음과 동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책임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시절로부터 십 년이 지난 후에는 천천히 영웅에 대한 숭배가 한층 열어졌다. 나는 모래 한 알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모든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 이런 작은 사건과 사물들의 깊숙한 곳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다. 이러한 변화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 지난 작품에 관해 글을 쓰면서, 나는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니 그냥 넘기지 말기 바란다. 이 창백한 사람이, 겉모습은 이미 비바람에 녹이 쓸어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얼굴에

는 고생한 흔적이 가득한 썬마오가 되었다. 아름다움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 독자들이 완전히 다른 작품의 두 책을 읽어보고, 그다음 다시 비교해보기 바란다!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다. 내 삶의 일부분을 글로 옮기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부디 내 책을 읽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는 비록 유치한 내용들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저 내가 얼마오였을 당시 빗속을 걸었던 몇 년이었고, 결국 비의 계절이 썬마오 삶에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 자체는 별로 읽을 가치가 없다. 하지만 <사하라 이야기>를 읽은 친구들이 다시 이 유쾌하지 않은 책을 보고, 썬마오와 십 년 전의 얼마오를 비교한 후 어쩌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썬마오는 스스로 성격상의 단점을 돌이켜보고 고쳐보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다만, 모두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항상 운명의 비극은 개인의 성격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변함없이 탐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끔은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노력이며 목표이다.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 마음 속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암흑에서 나를 이끌어 주는 힘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는 날까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광희^{狂喜}가 아니며 고통은 더더욱 아니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졸졸졸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고, 파도가 없는 푸른 바다와 같으며,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어 삶의 순간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천국에 있는 것이다.

겁쟁이

이 이야기는 매우 평범한 이야기이다. 몇몇 친구들에게 나와 똑같은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반 이상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화려했다. 대부분은 혼나거나 매 맞지도 않았다고 한다.

바로 돈 훔치기다.

물론 밖에서 훔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보통은 부모의 지갑이나 호주머니를 뒤져 지폐 한 장 정도 빼내는 정도다.

친구들은 어릴 때 돈을 훔치면 대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빨리 써버리고는 집에 가서 벌을 받곤 했다. 딱 한 명만 훔친 돈으로 타이난에서 기차를 타고 타이베이로 가서 이틀 동안 유랑하다가 돈을 다 쓰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멀리까지 유랑했던 그 친구가 벌을 가장 적게 받았다. 돈과 아이 둘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하자, 그 친구의 부모는 돈 보다는 아이 때문에 더 마음을 졸였다. 그런데 잃어버릴 뻔 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이에게 매를 들기는커녕 오히려 잘 대해 주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돈을 훔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들이 평소에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된다. 물론 이성적인 부모일 경우라면 말이다.

내 부모님도 이성적인 분들이셨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셨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길에 나르면 주머니에 속에 동전 몇 닢이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길 바라기 마련이다.

그 해 나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 됐지만, 설 명절 때 세뱃돈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받은 세뱃돈도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배게 밑에 깔고 자면서 설을 쇠라고 준 것이었다. 설이 지나면 군말 없이 부모님께 돌려 드리고 금액을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 어른들은 저금해 두었다가 나중에 아이

들 학비에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학업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 큰 남동생이 그랬다. 동생은 세뱃돈을 부모님께 돌려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설 연휴 3일 동안 동네 아이들에게서 카드 게임으로 돈을 따내고는, 한 반년 동안은 넉넉히 썼다. 어린 나이임에도 돈 관리를 꼼꼼히 했기에 늘 풍족했다.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고무줄을 모으기, <홍루몽> 인물 스티커 모으기, 셀로판지(알록달록한 사탕을 찢던 포장지)모으기가 유행이었다.

이런 물건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문방구 어디서나 팔았으며 교환도 가능했다. 교환이라 함은 다 쓴 연습장을 문방구 아주머니에게 가져다주면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바꿔 주는, 그런 물물 교환을 말한다. 사탕 알은 쓱 빼 먹고 사탕을 찢던 종이는 깨끗하게 물에 씻어서 책 속에 끼워 넣었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친구들과 인물카드 혹은 고무줄 몇 줄과 바꾸곤 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가장 열심히 했다. 연습장을 빨리 써버려야 얼른 가서 사탕 종지와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끔 숙제를 제대로 못해서 선생님이 다시 써오라고 하셨지만 싫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

반 친구들 중에 내 고무줄이 가장 길게 늘어났다. 방과 후 고무줄놀이를 할 때 그 희열이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연습장을 왜 그렇게 빨리 써 버리는지 그 이유를 아실 리 없으셨다. 그저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어서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쉬지 않고 숙제만 해 대는 것 아니냐고 애꿎은 선생님만 탓하셨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안방에 들어갔다가 5단서랍장 위에 붉은 지폐 한 장이 살포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5위안짜리였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120위안 정도였으니까, 5위안이면 지금의 500위안 가치였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컬러 고무줄과, 수많은 <홍루몽>속의 미녀 인물카드와, 큰 유리창에 다 붙여도 남을 만한 양의 사탕 종지와 맛먹는 가치였으며, 죽도

록 연습장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모든 아이들 마음속 소원이자 즐거움과 바꿀 수 있는 액수였다.

살포시 누워있는 붉은 지폐를 맞이하는 순간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두 주먹을 굳게 잡은 채 지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앞마당 월계수 아래였고, 바지주머니 속에 지폐도 만져졌다. 결국 주머니에 넣고 나왔던 것이다.

방으로 되돌아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가서 뭔가를 살 용기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아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마당의 흙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점심을 먹으라고 불렀을 때에야 마지못해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국물 한 숟가락을 겨우 떠먹으려는데 어머니가 혼잣말로 “이상하다. 아까 분명 5위안짜리를 꺼내 놓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네.”라고 하시는 것이다. 언니와 남동생은 여전히 밥만 먹고 있을 뿐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놓은 데가 기억 안 나가나 아예 꺼내 놓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괜히 한 마디 했다.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뜨거운 국물을 얼른 입에 떠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일요일이면 아이들은 강제로 낮잠을 자야 하지만 나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가서 딱히 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산다 해도 들고 들어올 수도 없었다. 그날 저녁에 부모님 앞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검사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침대로 끌려왔다. 어머니는 긴 바지를 입고 자는 걸 싫어하셨기에 내 바지를 벗기려고 하셨다. 어머니의 손이 내 바지 주머니에 닿으려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나는 침대 위를 한 바탕 구르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내 모습은 정말 열이 나는 아이처럼 보였다. 주머니 속 5위안은 끓는 가마

속 갈비처럼 수시로 내 다리를 뜨겁게 했다.

“메이메이^{짚마오} 아명이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안 데려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아버지가 체온계를 꺼내 툭툭 터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눈을 다시 꼭 감고 자는 척했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굳세게 지켰다.

한여름의 오후,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큰 나무 아래 작은 탁자로 보내 유자와 구아바를 세게 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는 차가운 녹두죽이 놓여 있었다.

언니가 항상 손에 <서유기>를 들고 보고 있으면 우리한테도 읽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 언니는 한 단락만 읽어주고는 그 이상을 듣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10전*을 내면 좀 더 읽어 주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언니는 정말 더 이상 읽어주지 않았고, 머리를 숙인 채 혼자서만 열심히 읽었다. 한 번은 큰 남동생이 통 크게 언니한테 20전을 냈더니 손오공이 몇 번씩 변신하고도 화염산까지 갔다. 그 뒤로 남동생이 다시 ‘인심’을 쓴 일이 없었으니 나는 더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날 언니는 <서유기>가 이제 재미가 없어졌으니까 로맨틱한 이야기를 읽어 주겠다고 했다. 로맨틱한 이야기가 뭐냐고 묻자, 언니는 <홍루몽>이라고 했다. 그 속에 나오는 연애하는 이야기를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역시 돈을 내야 들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그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황혼 무렵이 될 때까지 아직 쓰지도 못했다. 저녁에는 반드시 긴바지를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잠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돈을 어디다 숨긴담. 만에 하나 어머니가 옷이라도 빨다가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기라도 하면……정말 안 될 일이다. 가방 속에도 넣으려고 해도, 우리가 잠든 사이 아버지가 검사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 신발 속에 넣자니 아침마다 신발을 신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니 그것도 안 된다. 서랍도 큰 남동생이 와서 자꾸 뒤지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그 외에 아이들에게 숨길 곳이 정녕 없단 말인가. 결국 나만의 비밀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 1위안의 10분의 1.

언니가 돈을 받고 책을 읽어 준다고 하니 차라리 언니한테 돈을 쥐버리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언니에게 거슬러줄 돈이 있냐고 물었다. 언니가 얼마짜리냐고 묻자 1위안짜리니까 90전을 거슬러 주고 연애소설을 들려 달라고 했다.

“돈은 어디서 났어?”

언니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나는 또 얼굴이 달아올랐고, 결국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5위안짜리였다. 하지만 그걸 꺼내 보이면 들켜버릴 게 뻔했기 때문에 1위안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끝내 병원에 끌려가고 말았다.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에게 종일 얼굴이 벌겍게 달아있고, 초조해하고, 말도 잘 안하고, 밥도 잘 안 먹으며, 낮 나간 아이처럼 멍한 게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내 증상에 관해 설명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은 열도 나지 않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일찍 자라고 하셨다. 그래야 내 일 학교에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욕실로 끌려들어 갔다. 어머니가 옷을 벗으라고 했지만 나는 벗지는 않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얼굴이 벌겍게 돼서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식모 위편이 쪼그리고 앉아서 내 다리를 씻겨 주고 있었다. 그제야 한시름 놓였다.

그 5위안은 그때까지도 내 바지 주머니 속에 있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바지 속에 돈을 꺼내 손에 꼭 잡고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큰 남동생이 주먹으로 욕실 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우리 남매들이 잠자리에 들자 어머니는 욕실로 가셨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다.

나는 맨발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5위안을 돌돌 말아 5단서랍과 벽 사이 틈으로 찻싸게 밀어 넣고 방으로 얼른 돌아와 길게 한숨을 내 쉬었다.

그날 저녁, 그 많던 꿈들이 나의 겁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니 씩씩하기 그지없었다.

“아침 다 먹을 때까지 학교 못가.”

우리 남매 셋은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만상을 찡그리며 아침을 먹었다.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엄마, 돈 찾았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너희들 학교 간 다음 찾으면 돼. 얼른 먹기나 해!”

어머니가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나는 아침을 다 먹고 책가방을 메고는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한 바퀴 빙 돌고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돈이 벽 사이에 들어가 있었네요.”

어머니가 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돈을 주우시면서 “바람에 떨어졌었나 보네, 찾았으니 됐어.”라고 하셨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슬쩍 보셨다. 나는 또 열이 나는 사람처럼 얼굴이 달아올라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깜빡한 채 문밖으로 뛰어나갔다.

돈 훔친 사건은 그렇게 매우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상한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 달에 1위안의 용돈을 주기 시작했고, 각자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게 했다. 용돈을 다 쓰면 상의를 하고 다음 달 용돈을 먼저 받아 쓸 수 있었지만 두 달 이상 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에는 참고 기다려야 했다.

그 사건이 있던 후 두 번째 일요일, 아버지는 수입 사탕 한 상자를 가져다주셨다. 천천히 먹으라는 등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나는 얼른 사탕만 따로 뽑아 모아두고 사탕 종이를 대야에 물을 떠다가 깨끗이 씻은 후 한 장 한 장 유리창에

붙여놓고 마르기를 기다렸다.

그 날 오후는 사탕 종이를 세는 즐거움 속에 유유히 지나갔다.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때 일을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왜 안 훔쳤어?”라고 물었다. 나는 그때 그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얘기하다 보니 언니와 동생들이 킁킁 웃고 있었다. 다들 경험이 있었고, 그때는 나처럼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옛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취사병

그날 나는 빨간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 등굣길에 미친 물소 한 마리가 학교까지 쫓아왔다. 도망치면서도 나는 이놈의 소가 잠깐 쫓아오다 말거나, 다른 행인에게 쫓아갈 줄로 생각했는데 글썄, 나만 끝까지 쫓아오는 것이었다. 울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소는 그 네 개의 다리로 달려오면서 머리에 난 뿔로 자꾸 나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내 치마 끝자락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좁혀졌다. 나는 마침내 교실로 뛰어 들어갔다. 이 미친 물소는 아직도 운동장에서 발로 흙을 걷어차고 있었고 학교 조회는 이 일로 인해 취소됐다. 반 친구들은 소가 교실을 들이받기라도 할까 봐 벌벌 떨고 있었다.

아침 체조 음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방송실에서 “학생 여러분, 교실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했다.

나는 졸지에 소를 학교 운동장으로 끌어들인 주범이 되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두 손으로 창문의 나무틀을 잡고 거친 숨을 내뿜고 있었다. 친구들은 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몽둥이를 교실 문에 반혔다. 선생님들도 교무실 출입문과 모든 창문을 꼭 닫았다.

그날은 내가 물 당번을 해야 했다. 물 당번 명단은 원래 기율부장이 칠판에 써 놓고 두 명이 짝이 되어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율부장은 늘 순서를 잊어버리곤 했다. 어쨌든 그는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아침쟁이로 늘 같은 반 친구들을 못살게 했다.

나는 가끔 오락부장에 선출되긴 했지만 기율부장의 기세에는 비교할 바도 못했다.

미친 물소가 아직도 운동장에서 물건을 찾아 들이받고 있었을 때, 기율부장은 물 주전자에 물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지금처럼 각자 물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학생들은 목이 마르면 교실에 있는 큰 물주전

자로 가서 공용 물컵 하나로 다 같이 마시곤 했다. 매우 간단했다. 하지만 주전자는 매일 물 당번이 학교 주방에 가서 끓인 물을 받아 와야 했다. 주방 아저씨가 물을 가득 채워 주면 각 학년 아이들이 물을 들고 교실로 가져갔다.

소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지만, 기율부장은 당장 가서 물을 받아 오라고 했다. 안 하면 이름을 기록했다가 선생님께 이를 요량이였다. 같이 당번이 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안 가겠다고 했다. 그 애가 우는 이유는 선생님께 이를까 봐서였다. 나는 빈 주전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소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목숨을 걸고 주방을 향한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다.

주전자에 끓인 물을 다 채웠지만, 교실로 바로 가지 못하고 복도 끝에서 자세를 낮추고 멀리 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안 가면 기율부장이 이름을 적어 선생님께 이를 것을 생각하니 그만 눈물이 나와 쪼그리고 앉아서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때마침 아침 훈련을 나갔던 학교 주둔 군인들이 돌아왔다. 주둔군은 국경일 전에 타이완 남쪽에서 타이베이로 와서 잠시 학교에 주둔해 있었다.

군인들이 왔다. 그때까지 미친 소는 운동장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전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수백 명이 하늘이 떠날 것 같은 함성을 지르더니 무슨 진법을 사용했는지 소를 한 걸음 한 걸음 학교 밖으로 쫓아냈다.

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물주전자를 들고 가다 쉬기를 반복하면서 교실을 향해 걸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전자를 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죽었다. 소가 뒤에 와 있는 게 분명해!’

거친 숨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나는 꿈쩍도 못 했다.

이때 잔뜩 움츠린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느끼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 눈으로 쳐다보니, 소의 눈처럼 돌출된 커다란 두 눈이 나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에 온통 진한 녹색의 옷이 보였다. 나는 일어났다. 그는 물을 길러 온 병사였다.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아, 소리를 내면서 손짓으로 말했다. 그는 정말 큰 양동이를 지고 있었다. 한쪽 어깨에 양동이 두 개가 걸린 멜대를 지고 있었는데, 그 양동이 안에는 파초 잎이 띄워져 있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의 병사는 납작한 코에, 얼굴은 큰 빵떡 같았고, 몸집은 산 같았으며, 그가 신은 군화는 마치 작은 배처럼 커 보였다. 언뜻 무서운 사람 같아 보였지만 다시 보니 그의 눈은 어린아이의 눈처럼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제야 나는 소매로 얼굴을 닦아 내렸다. 그 병사는 지고 있던 양동이를 내려놓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나의 그 사연 많은 주전자를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손짓했다. 길을 안내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작고 말라깽이었던 나를 내 주전자와 함께 교실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아직 교실에 오시지 않았다. 나는 복도 배수구 한 편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땅바닥에 뭐 하는 병사냐고 썼다. 그러자 그 병어리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양동이를 내려놓고는 바닥에 ‘吹兵 ^{취병}’이라고 썼다. ‘炊, 취사할 취’를 써서 ‘炊兵’라고 써야 하는데 ‘吹, 불 취’로 틀리게 썼다.

멀리 복도 끝에서 선생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교실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병어리가 악수를 청했기에 그와 악수를 해야 했다. 그가 내 손을 아래위로 어찌나 세계 흔들어댔는지 하마터면 내 몸이 튀어 오를 뻔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다.

그렇게 나와 병어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므로 숙제가 많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병어리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사람에게 ‘병어리, 병어리’ 하고 부르지 말라며 꾸짖으셨다. 나는 웃으면서 지금 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대꾸했다. 매일 아침 나는 병어리를 만났다. 그는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반겨 주었다.

우리를 늘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글자를 썼다. 처음에 ‘火(화)’자를 썼다. 그리고 또 ‘炊(취)’자와 ‘吹(취)’자를 구별해서 썼다. ‘炊’자를 설명하자 그는 이내 불 부채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 ‘吹’자를 보고는 나팔수 흉내를 냈다. 병어리는 똑똑했다. 한 번 가르쳐 주면 금방 이해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바닥에 ‘茶(차)’라고 썼다. 아마 ‘笨(바보)’라고 쓰려다가 잘 못 쓴 것 같았다. 나도 그의 머리를 한 대 때려 주었다. 그때 그 시간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랐다. 매일 아침 학교 수업 시작 전에 ‘꼬마 선생님’이 되어 기골이 장대한 아저씨에게 바닥에 글자를 써가면서 가르쳤으니 말이다.

병어리는 바보가 아니었다. 가득 채운 물을 한 번도 바닥에 흘린 적이 없었다. 그는 수화로 물 위에 나뭇잎을 띄우면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얼마 뒤, 학교에서 이야기 시간에 병어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병어리는 쓰촨 사람이었고 입대 전, 그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아내도 있었다. 며느리가 출산이 가까워 오자 시어머니는 병어리를 시내로 보내 약을 지어오게 했다. 병어리가 시내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군인에게 끌려가 짐을 한 번 진 이후로 지금까지 군대를 떠나지 못했으며 고향에 있는 아내가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타이완으로 왔다.

이 이야기는 ‘오락시간’에 했었다. 이야기를 들은 반 친구들은 모두 넋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병어리의 이야기는 모두 가짜라며 학생들에게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병어리와 손짓과 발짓으로, 그림으로, 글자로, 또 온갖 눈치로 어렵게 알게 된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하늘은 알 것이다. 그날 병어리는 그의 큰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만져 주면서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나를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물 당번인 날에는 병어리가 나대신 물을 들어 주었고, 매일 등하교 때마다 그와 인사를 하고나서야 비로소 각자 위치로 돌아갔다.

집에서도 나에게 어른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신 물도 들어 준다니 몹시 고마워했다. 안 그래도 어머니는 뜨거운 물에 자식이 데이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들게 하지 말라고 항의도 못 하던 참이었다.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을까. 병어리는 매일매일 하염없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내가 교문으로 들어서야 비로소 만면에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아껴 주고 싶어서 가방을 뺏어 메고 교실 입구까지 데려다주고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양동이를 지고 갔다.

병어리는 돈이 없었다. 그의 선물은 늘 파초 잎이었다.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조심조심 딴 파초 잎은 작은 구멍 하나 없었다. 나는 사흘이 멀다 하게 선물 받은 초록색의 네모난 잎사귀를 책상 위에 책받침처럼 깔아 장식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나도 병어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선물은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 아니면 절인 매실을 주는 것, 혹은 방과 후 시소 놀이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병어리는 무거웠으므로 같이 시소에 앉지 않고 손으로 지그시 시소를 놀렸다. 내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놓으라고 하면 조심조심 놓았다. 한 번도 나를 떨어뜨려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 우리들의 놀이는 언제나 조용했다. 다만 석양이 진 운동장에 두 개의 소리 없는 그림자로 남을 뿐이었다.

어느 날, 병어리가 비밀스런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나한테 오라는 손짓을 했다. 내가 뛰어갔더니 손을 펴 보여 주었다. 거의 다 갈라져 지도가 그려진 듯 한 손바닥에는 금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을 보았다. 그런 물건은 집에서 본 적이 없었으며, 어머니의 손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병어리는 그날 매우 진지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 금을 내밀어 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머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두 손을 몸 뒤로 가져

가서는 절대 내밀지 않았다. 병어리는 내손을 억지로 당기지 않았다. 쪼그려 앉아 바닥에 “얼마 안 있으면 떠나는 데 가기 전에 추억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라고 썼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잘 가요.”하고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가 버렸다.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꺾다리 아저씨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선생님이 다녀가셨다고 했다. 내가 오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셨던 것 같다. 가정방문은 원래 큰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었다. 대개는 사전에 공지하고 일찍 수업을 마친 다음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집마다 방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방문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이라도 한 걸까, 밤새 걱정이 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일로 금반지 얘기를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다.

이튿날, 수업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상냥하게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교무실의 의자 맨 끝에 앉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내게 그 물 깬 병사와 있었던 일에 관해서 물으셨다.

나는 모두 답했다. 하나하나 모두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당황스러웠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네게 나쁜 짓 하지는 않았어?”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선생님이 분명 병어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분명 안 좋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할 리가 없었다.

정말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그만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가란 말씀도 하시기 전에 잔뜩 화가 난 상태로 교실로 돌아가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그날 방과 후,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교문까지 바래다주셨다.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병어리를 보았지만 멈추지 못하게 했다.

병어리와 나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내 눈시울은 붉어졌다. 손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병어리를 보고는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셨다.

“만약 내일 또 그 병사와 친구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뿐 더러 맞을 것도 각오해야 해.”

교문 앞까지 도착하자, 선생님은 매우 엄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울면서 뛰어 가려 하자, 선생님이 나를 다시 붙잡고 말했다.

“대답하고 가야지. 어서.”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부터 나는 병어리와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반갑게 나를 반겼지만 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교실로 도망쳤다. 창밖에 병어리는 우두커니 선 채로 창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얼른 머리를 숙였다.

키 크고 풍채 좋은 병사는 아침저녁으로 물을 길었다. 어깨에 진 두 개의 양동이까지 앞뒤에서 흔들흔들하니 학교에서 눈에 더 잘 띄었다. 남자애들은 병어리가 지나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듯이 놀려댔다.

“한 병어리 물을 길어 먹고, 두 병어리 물을 길어 먹고, 세 병어리 물을 길어 먹네…….”

앞뒤에서 놀려댄 것도 모자라 겁도 없이 양동이를 밀쳐 물이 쏟아져 나오게 했다.

예전에도 병어리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때는 걸음을 멈춰 양동이를 내려 놓고 아이들을 쫓아냈다. 아이들을 쫓아 보낸 뒤에는 늘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나와 병어리가 바닥에 글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병어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늘 메고 다니는 멜대를 빼앗아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는 그 멜대로 그녀를 때리면서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나는 즉시 쫓

아가서 뽀뽀이 남자애를 붙잡고 때렸다. 둘이 맞붙어서 격하게 싸우면서도 둘 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다. 마지막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그 남자애를 밀쳤는데, 그 애의 머리가 그네에 부딪혔다. 그제야 그 애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선생님에게 가서 일러바쳤다.

나는 난생처음으로 학교에서 싸웠다. 남자애의 반 선생님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병어리는 화가 나, 가서 혼내고 주고 싶은 표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내 옷에 묻은 흙을 털어 주었다. 그리고 내 몸 좌우를 다 살펴보면서 그 큰 손으로 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리하지 않고 나를 향해 고개만 한 번 끄덕이고는 눈물이 그렇그렇한 채로 가버렸다.

그런 사람에게 선생님은 병어리가 내게 ‘나쁜 짓’ 하지 않았냐고 묻다니 내 가슴은 정말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령이었다. 다시는 병어리와 만날 수 없었고, 인사도 못 하며, 다시는 꼬마 선생님도 못 하고, 시소 놀이도 할 수 없었다. 미술 만들기 시간에 진흙으로 만든 벼루도 선물할 수 없는 나의 어린 친구…….

그리고 그의 그림자는 담 모퉁이에서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다. 누가 감히 하늘과 같은 선생님에게 반항하겠는가?

그 이후로 나는 등굣길에 항상 친구를 기다렸다가 교문에 도착하면, 우르르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서 들어갔다. 방과 후에도 소 눈같이 큰 눈을 피해서 빨리 뛰어갔다.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날까 봐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방을 멘 채 고개를 숙이고 급히 걸어갔다.

내 마음은 그렇게 짓눌리는 듯 아플 수 없었다. 그런 불의한 수치심으로는 선생님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학교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강압적인 매정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주방에서 병어리와 마주치고 말았다. 병어리는 예전처럼 주전자를 들어 주었고, 나는 말없이 그의 옆에서 걸었다. 국경일이 지나자 부대는 즉시

남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어리가 교실로 가는 길에 이르자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 작은 돌맹이를 찾지 못하고 손톱으로 흥분된 표정으로 물음표를 그렸다. “?” 정말 큰 물음표였다. 그것도 한꺼번에 몇 개를 연속 그렸다. 글자는 쓰지 않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계속해서 물음표만 그렸다.

나도 글을 쓰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바깥으로 내밀었다.

“내가 아니야.”

병어리가 이해를 못 하자 나는 땅 바닥에 빠르게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라고 썼다. 이번에도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금을 쥐서 화가 난 거야?”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힘차게 흔들었다.

선생님의 명령이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날 원망하지 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그저 큰 소리로 말할 뿐이었다. 그는 나의 표정만 볼 수 있었다.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 소녀의 답답하고 속상한 그 표정만을.

그때 병어리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부대가 떠날 때도 올 때와 같이 조용했다. 큰 트럭에 짐을 싣고 밀림의 나무처럼 대오를 지어 이동했다. 떠날 무렵,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향해 인사를 하자 군인들은 일동 거수경례로 감사의 인사를 했다. 우리는 교실에서 풍금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잔잔한 3월, 철쭉꽃이 산언덕에 피었네

철쭉꽃이 작은 시냇가에 피었네……

하지만 내 눈길은 줄곧 바깥을 향해 있었고,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입으로는 나오는 대로 따라 부르고 있었지만 눈은 줄지어 한 줄, 한 줄 출발하는 군인들을 쫓고 있었다. 결국 그 사람들 틈에서 친구는 찾지 못했다. 노래가 또 바뀌었다. 이번에는 “똥랑똥랑*”이었는데 매우 신나는 노래였다. 노래는 부를수록 격앙되어 툭툭 뿜 기세였다. 노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풍금 연주가 서서히 멈추었다.

“누굴 찾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이 긴장된 어조로 물으셨다.

반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제야 교실에 병사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병사는 나의 친한 친구였고, 보고 싶었던 병어리였다. 그는 산처럼 여자 선생님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나가요. 나가라니까요…….”

선생님은 히스테릭하게 풍금 뚜껑을 ‘핑’하고 소리 나게 덮었다.

나는 선생님을 신경 쓰지 않고 먼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소리쳤다.

“병어리! 병어리!”

다급한 표정으로 손짓하며 그에게 나오라고 했다.

병어리는 얼른 뛰어나갔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있었다. 그는 책 한 권 크기의 그 종이봉투를 내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의 두 손을 꼭 잡고는 “아, 아, 아”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서 나와 작별을 고하려 했다. 종이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다. 병어리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나는 그냥 서 있을 뿐, 온통 충혈 되고 돌출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행

* ‘丟丟銅仔’. 푸젠과 타이완지역에 유행했던 동요. 증기기관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떨어지는 물소리를 묘사.

동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떠났다. 매우 빠르게 떠나갔다. 한 군인이 엄청난 무게의 슬픔을 어깨에 지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뚜벅뚜벅 떠나갔다.

종이봉투 속에는 주소와 이름을 적은 것이 들어 있었다. 군부대 사서함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시 아이들에게 금과 같이 귀한 소고기 육포가 한가득 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육포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설날에나 한 두 개씩 나눠 먹는 게 고작이었다.

선생님도 당연히 그것을 보았다.

주소는 선생님이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고, 소고기 육포도 못 먹게 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다.

마침, 학교 사환의 퐁개가 지나가고 있었다. 선생님은 육포가 든 종이봉투를 공중에서 아래로 쏟았다. 육포들은 봉투에서 날아 떨어졌고, 개가 뛰어오르면서 그걸 받아먹었다. 선생님은 매우 침착하면서도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다시 <수호전>을 보다가 취병산에서 양웅^{楊雄}이 반교운^{潘巧雲}을 죽이려고 할 때 반교운이 석수^{石秀}에게 도움을 청하자, 석수가 “형수님! 제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왔다.

“제가 아니에요!” 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어린 내가 병어리 병사에게 안타깝게 외쳤을 때가 생각났다.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배신한 것 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 가슴 아픈 사건은 평생 내 가슴을 짓눌러 왔다. 매번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나약했던 내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살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어찌 ‘내가 아니야.’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병어리 취사병^{吹兵}님,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炊’자와 ‘吹’자의 다른 점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취사병님께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 본명은 천평^{陳平}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교복에 항상 달고 다녔던 그 이름이요. 그리고 취사병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발 저에게 편지라도 한 통 보내 주시면 주실 수 없나요? 그럼 제가 큰 봉투에 소고기 육포와 금반지를 선물할 수 있을 텐데…….

책을 읽기 위해 ‘땡땡이’치다

이 년 전 즈음이었던 여름, 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님을 뵈려고 귀국을 했다. 짧은 2개월 동안이지만 만나야 할 친구와 지인들을 거의 다 만났다.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의 지인들을 찾아뵈었는데, 그때 마다 꼭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셨다. “어릴 때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던 문제아가 이제는 혼자서 외국에서 잘살고 있으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구나.”

이런 말을 여러 번 듣고 나서야 지난날의 내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매우 잘못된 인상을 선사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슬그머니 웃음을 짓게 되었다.

다시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와 나는 숨이 턱턱 막히는 창고를 비집고 들어가 책 상자들을 풀어 책들을 찾아 정리했다. 내가 처음 출국할 당시 아버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보관해 둔 낡은 책들이었다. 나는 이 중에서 여전히 아끼는 책 몇 권을 머나먼 카나리아 제도에 부칠 요량으로 책들을 골랐다.

오후 내내 정리를 하신 아버지는 많이 지치신 듯 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다들 네가 정말 공부하기 싫어했다고들 하더구나. 네가 부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쌓여있는 낡은 책들이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야. 차라리 여기 책들 다 내다 버릴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말처럼 네가 여전히 공부 안 하는 문제로 남을 수 있을 터인데 말이야.”

우리 부녀는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마치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비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 몹시 기뻐다.

나의 독서 역사를 얘기하려면 광복 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때 우리 집은 충칭에서 난징으로 이사를 해 구러우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다.

‘터우티아오상 4호’라는 곳의 큰 집이었다.

우리는 저장사람들이었다. 전쟁 후 고향에 가서 조부를 뵙고 왔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정부 관련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난징에서 살았다.

우리 대가족 중에는 중앙대학교에 간 사촌도 있고, 진령중학교에 다니는 사촌도 있었다. 나보다 세 살 많은 친언니도 학교에 들어갔다. 나만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지 않아 란잉이라는 식모와 집에서 놀았다. 그때 큰 남동생은 아직 갓난아이였다. 그래서인가 내 기억에는 큰 남동생이 타이완으로 간 다음에야 존재했던 것처럼 남아있었다.

란잉은 원래 살던 곳에서 기근을 피해 온 여자다. 사실 우리 집은 식모가 더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집의 나이든 하인으로 문을 관리하는 할머니가 란잉과 친척이었으므로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의 아들까지도 받아들였다.

낮에 언니가 학교에 가면 란잉은 곧바로 나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자기아들에게로 가서 나와 놀아주라고 했다. 원래 나는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툭 건드리기만 하면 우는 그 아이와는 정말 맞지가 않았다. 개는 머리에 부스럼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하얀 색의 분말을 뿌려 치료했다. 그 모양이 더 보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란잉이 내게 신경을 쓰지 않는 기미가 보이면 개와 떨어져 놀았다. 장난감을 다 양보해 줘도 개는 계속 울기만 했다.

그 당시 우리가 살던 큰 저택에는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서재 외에도 2층에 언니, 오빠들이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방 하나가 또 있었다. 그 방에는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었다. 큰 창문 하나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오동나무가 보일 뿐, 방안에는 온통 책들이었다.

어른들이 보는 책은 위에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보는 책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었다.

란잉의 아들이 나를 따라 그 방에 들어오길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늘 그곳으로 피해갔다. 그리고 혼자서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란잉이나 어머니가 와서 야

단치며 밥을 먹으라고 해야 나왔다.

내가 한 세 살일 때였을 것이다.

내 기억에 어릴 때 처음으로 봤던 책은 글자가 없는 책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책 제목이 <싼마오 유랑기>인 걸 기억하고 있다. 그 후에 여기에 다시 한 권이 늘었는데 <싼마오 종군기>라는 책이었고 작가는 장러핑이었다.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엄청 좋아했다. 그 책에는 아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내 수준에 맞게 이해했다. 웃기도 하고, 탄식도 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했다.

‘싼마오’를 다 보고 나서, 책에 그림이 있는 어린이용 책은 다 봤다. 집에 아이들 책이 한 가득 있었는데, 상무인서관 출판 도서였고 엮은이가 언니네 구려우초등학교의 천허친 교장 선생님이었다. 나중에 나도 구려우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어렸을 때 나는 이미 <피노키오>, <그림 형제동화>, <안데르센동화집>과 <사랑의 학교>, <엄마 찾아 삼만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매우 많은 동화 집을 가지고 놀았다. 나중에 다 커서 아버지에게 이려고 놀았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내 기억일 리가 없다면서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사촌들이 나중에 타이완에 와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우기셨다. 하지만 이건 진짜 내 기억이었다. 그때 어린 나는 그림과 표지, 글자들을 보고는 언니, 오빠들에게 가서 이 책은 무슨 책이고, 왜 우는 아이를 그렸으며, 책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던 것들이기에 기억에 남아 있었다.

나는 먼저 책을 보고 나중에 글을 익혔던 것이다.

어느 날, 내가 난징집 정원의 모형산 위에 앉아 뽕나무의 싹눈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 돌아오셨다. 갑자기 금원권* 한 뭉치를 주시면서 갖고 놀라고 했다. 나는 그것으로 말머리표 아이스크림을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놀

* 중국 국민당 정부 시기의 화폐

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 손에도 한 뭉치 들려 있었다. 나와 언니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늙은 하인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대만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면서 말이다.

피난의 기억은 어머니가 배에서 심하게 구토를 했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다.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낮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구토만 반복하셨다.

타이완에 왔을 때 나는 여전히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안됐지만, 어머니가 선생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나와 언니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때 이미 나는 많은 글자를 쓸 줄 알았다.

글을 몰랐던 기억은 없었다. 초등학교에 주음부호를 배우고, 사탕 종이를 읽으면서 얼마 안 돼 바로 소설도 읽을 수 있었다.

그 시절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날은 월간지 <학우>와 <동방소년>이라는 이 두 잡지가 나오는 날이었다. 언니도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모르는 글자는 언니가 가르쳐 주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는 그때 읽은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정말 쉬웠다. 새 교과서를 받으면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책에 표지를 씌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받은 첫 날에 바로 큰소리로 한 번 낭독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 날 교과서가 더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선생님을 찾아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물론 선생님께 실컷 야단만 맞았지만 말이다.

<학우>와 <동방소년>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읽을거리가 턱 없이 모자랐던 나는 사촌 오빠들 책을 뒤져 읽기 시작했다.

둘째 사촌오빠 책 더미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작가들을 보았다. 루쉰, 바진, 저우쥘런, 위다푸, 빙신 등이었는데, 그때 나는 몇 살 안 됐기 때문에 들어본 작가들이라곤 <학우>에서 소개된 작가들로 죄다 외국인 작가들이었다.

그때 나는 루신이 쓴 글 중에 <연>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기억난다. 그 후에 <낙타상자>를 봤었는데 그 책은 이해가 잘 안 됐다. 또 빙신이 어린 독자들에게 쓴 글들도 봤다. 여하튼 그때 국어일보는 단숨에 읽어 버리곤 했으므로 그 것만으로는 읽을거리가 부족했다. 나는 어떤 책이든 손에 들어왔다 하면 다 삼켜 버렸다.

어느 날 사촌오빠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책들 금지됐어. 보면 안 돼. 태워야 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물었다.

“독이 있대.”

나는 너무 놀랐다. 오빠들은 유자나무 아래서 책을 태우고 있었다. 나는 크게 숨을 토해내고 나서야 진정이 됐다.

그 후로 얼마가 흐른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주취원이라는 동네에 대중교통 운행이 시작됐다. 개통 첫날 온 집안이 큰아버지를 따라 버스를 타고 기념 사진도 남겼다.

대중교통이 생기면서 이곳 찌엔궐^{건국}북로도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다. 각종 상가가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상점도 문을 열었다. 바로 ‘건국서점’이었다.

당시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정말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타이완으로 건너왔다. 타이완에 오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귀금속은 금원권과 바꿔버렸다. 그렇지만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두 가정의 여덟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켜야 했다. 또 가끔 아픈 아이도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은 정말 안 좋았을 것이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몰랐을 뿐이다.

내가 ‘건국서점’이 책 대여점인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여태껏 고분고분했던 나는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용돈을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어

머니는 어쩌다 한 번씩 용돈을 주셨는데, 그 날은 즉시 서점에 가서 책을 빌려 왔다. 가끔 어머니가 방에 없을 때는 어머니의 반짇고리나 낡은 가방 혹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10전이라도 찾아내면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책과 바꿔왔다.

‘건국서점’은 정말 좋은 서점이었다. 서점주인은 저급한 소설 따윈 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책들을 나와 언니에게 추천해 주기도 했다. 그때 나는 조탕리가 번역한 로라 잉겔스 와일더가 미국 서부로 이주해 살던 때의 이야기들, 즉<큰 숲속의 작은 집>, <플럼 시냇가>, <초원의 집>, <소년 농부>, <실버 호숫가>, <눈부시게 행복한 시절> 등의 시리즈물에 완전히 미쳐 있었다.

나는 ‘건국서점’에 있는 아동도서들을 다 읽고 나서 다른 서적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스칼렛 펄퍼널>을 시작으로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돈키호테>를 읽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본 뒤, <제인 에어>, <포에버 앰버>,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외제니 그랑데>를 읽었다. 나는 그 거대한 급류에 빠져들어 가 나올 생각을 안 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나의 대부분 시간은 소설 속 인물들과 같이 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고학년(5학년)이 됐음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한 번도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말리신 적이 없었다. 단지 아버지만은 나의 책 읽는 자세가 걱정되셨다. 그런 자세로 계속 읽다가는 근시라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특이하게도 나는 먼저 외국소설을 읽고 나서 중국 문학을 읽었다. 내가 처음으로 본 중국 장편소설은 <풍소소>였다. 그다음 <홍루몽>을 손에 넣었는데 그건 내가 이미 5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였다.

나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책을 읽었다. 이해하건 못하건 이야기만 있으면 읽었다. 그러다가 괜찮은 문장이라도 읽는 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느낌이 ‘감동’이라고 불리는 것임을 나는 몰랐다.

고학년 수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수학이 어려워지면서 방정식도 배우기 시

작했다. 선생님도 수학에 매우 신경을 썼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산을 하게 하면서 하교 시간은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숙제도 매일매일 점점 많아졌다.

나는 수업시간에 몰래 소설책 보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라도 시간을 내서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숙제에 치여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처음으로 <홍루몽>을 볼 때 책을 치마 밑에 감추고 있다가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나는 얼른 치마를 걷어 올리고 책을 읽었다.

내가 보옥이 실종된 장면을 읽고 있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 가정^{眞政}은 객지에서 타고 가던 배를 정박하고 목기로 했다. 그때 하늘에서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가정은 집에 보낼 편지를 쓰면서 보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가 눈밭에 붉은 민소매의 외투를 걸치고 삭발에 맨발을 한 사람이 가정을 향해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가정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다시 보니, 그 사람은 합장하고 슬픈 듯, 기쁜 듯 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글썩, 보옥이 아니던가? 그 사이에 갑자기 웬 승려 한 명과 도사 한 명이 나타나더니 보옥의 팔을 양쪽에서 끼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가버린다.

내가 사는 곳은 청경봉이요.

내가 노니는 곳은 홍몽태공이요.

누가 나와 갈 것이며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아스라이 멀고 먼

저 대항산으로나 가보자꾸나

이 단락을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앞에 앉은 친구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잊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그 느낌은 이미 눈물과 감동이라는 단어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낮이 나간 채로 앉아 있는데 멀리서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다가오셨지만 뜻밖에도 혼내지는 않으셨다. 그저 내 이마를 만져 보시더니 “어디 아프니?”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말 없이 머리만 가로저으며 낮이 나간 채로 웃어 보였다. 그 찰나의 순간, 문득 ‘경지’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내가 앞으로 평생 추구할 목표가 된 것이다.

<홍루몽>을 나는 내 평생 계속해서 읽어나갈 것이다.

또 일 년이 지났다. 우리는 <푸르른 교목>*을 불렀다. 6년의 초등학교 시절이 드디어 끝이 났다. 많은 친구가 울고불고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속으로 잘 됐다며 자유를 외쳤다.

중학교 입시를 볼 친구들은 단체로 신청해야 했다. 선생님은 지원서를 나눠주시면서 집에 가져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해 오라고 했다.

내 차례가 되어 선생님이 내 자리로 오셨다.

“전 지원서 필요 없어요. 중학교에 안 가기로 했거든요.”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왜 지레 포기하는 거니?”

선생님은 거의 격노하시면서 물으셨다.

사실 난 입시에 붙을 자신이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학교 따위에는 가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어머니께 내일 학교에 다녀가시라고 전해.”

선생님은 끝까지 지원서를 내 책상 위에 놓고는 몸을 휙 돌리고 가버리셨다.

* 졸업 때 부르는 노래

나는 어머니께 선생님이 전달하라던 말씀은 전해드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밝은 불빛 아래서 지원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는 아버지가 빈칸에 한 자 한 자 내 미래를 채워 나가셨다.

그날 선생님은 뜻밖에 많은 숙제를 내주지 않으셨다. 나는 일찍 자려고 반듯하게 누웠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양쪽 귀로 흘러내렸다.

어린아이로 산다는 건 때로는 매우 슬픈 일이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어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와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 기나긴 여름방학 동안에도 나는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두꺼운 <대희고>를 손에 넣은 기쁨에 취해 있었다. 정말이지 그때 내 눈이 독서로 인해 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

돌이켜 보면 그때의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잡서^{雜書}'로 보이는 책밖에 모르고, 그 외의 것들과는 담을 쌓은 11살의 어린아이였다. 심지어 동년배 친구조차 없었다. 정말이지 너무 바빠서 나가서 놀 시간이 전혀 나지 않았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자그마한 의자를 들고 식구들이 안 보이는 마당의 구석진 담벼락 옆 큰 나무 아래로 가서 책이 데려다주는 다른 세계로 가는 바로 그때였다.

책에는 정말 그런 마력이 있었다.

나는 성립중학교에 합격했다. 어떻게 합격 했는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그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몰래몰래 <사조영웅전> 시리즈 전부를 봤다.

그런 책이 무서운 것은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읽고 나면 책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며칠씩이나 냇을 놓고 보내기 때문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책 읽는 즐거움을 더는 맛볼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내 주위의 친구들은 온통 낯선 얼굴들이었다. 반 분위기도 더는 초등학교에서의 그런 친숙감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새로

운 환경에 압도되었다.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 따위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위기였다.

사실 난 지식욕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했기에 학교 과목들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들렸다. 미술, 음악, 영어, 역사, 국어, 자연……이런 과목들의 이면에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을까. 수학도 그리 융통성 없는 학문은 아니다. 하나 하나 추리하고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장르만 다를 뿐 탐정소설과 같은 묘한 느낌이 있었다.

얼마나 갈망했던 새로운 지식이었던가. 한 송이의 꽃은 어떻게 피어나며, 예술가가 왜 그림을, 또 음악을 사랑해서 평생을 바치는지, 그리고 가로로 쓰인 영문자들은 도대체 내게 어떤 비밀을 말하려 하는지 얼마나 알고 싶었던가.

그러나, 선생님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미술 시간에는 선생님이 밀랍으로 만든 과일을 가져다주시면 똑같이 그려야 했고, 음악 시간에는 그냥 노래만 불렀다. 지리, 역사 수업은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어야 했지만, 우리는 암기하는 것 외에는 지도도 잘 안 그렸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은 한 학기만 가르치고 다시 미국으로 가셨다.

수학 선생님에 대한 나의 증오는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는 선생님의 그 무서운 눈빛은 마치 위협지 속의 날아오는 화살 같았다.

중학교 1학년 성적은 그런대로 만족할 만 했다. 중간 순위는 됐기 때문에 유급은 면했다.

다시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벗어 던지고는 곧바로 책 대여점으로 뛰어갔다. 그때는 우리 집이 창춘로[※] 아래로 이사 해 살 때였다. 거기에도 책 대여점이 있긴 했는데 딱 그 집뿐이었다. 물론 '건국서점'과는 비교가 안 됐다. 그 서점에는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책을 빌려본 경험이 좀 있는 나는 진싱즈와 같은 무명작가의 것을 잘못 가져온 적이 없

었다.

그때도 여름이었다. 아버지는 녹나무로 만든 장농을 말리고 계셨고, 나는 낡은 옷더미 아래서 몇 년 동안 먼지가 켜켜이 쌓인 보물을 찾아냈다. 부모님은 그 서적들에 대해 이미 까맣게 잊고 계셨다.

그 책들 한 세트 한 세트 모두 중국 통속소설들이었다.

누렇게 변하긴 했지만 우아하고 섬세한 죽엽지는 흰 무명실로 장정돼 있었고, 책마다 처음 몇 장은 붓으로 등장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겉표지 왼쪽에는 빨간 테두리가 쳐진 좁고 기다란 흰색의 네모 칸이 있었고, 그 칸 안에는 정갈하고 아름다운 붓글씨가 쓰여 있었다.

'수호전', '유림외사', '금고기관'……

그것들을 맞이하는 순간, 나는 책들의 존재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한 권 한 권이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다.

상자 바닥에서 한 무더기 낡은 책들을 발견한 나는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서점에 있는 구소련 작가들의 소설책들을 다른 사람들이 빌려갈까 봐, 여름방학이 끝나기 바쁘게 모든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가서, 그 책들 대부분을 빌려 왔었다. 그때 내 손에는 <부활>, <죄와 벌>, <죽은 혼>, <전쟁과 평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사냥꾼 일기>와 <안나 카레니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대여 기한이 있어 반납해야 했던 것들이었다.

내게는 동시에 중국 소설까지 생겼다. 12살이나 된 중국인으로서 그때까지 <수호전>을 읽어보지 못하다니…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이 한데 몰려와 빨리 가서 그 책을 읽고 싶었다.

“계속 그런 자세로 보다가는 눈 나빠져. 너무 가까이 대고 보지 말거라. 그러다가 책 속에 들어가겠네.”

아버지는 거듭해서 말씀하셨다.

그해 여름, 나는 머리를 책 속에 틀어박은 타조처럼 살았다. 그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 당시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로 책과 한 몸이 되어 있었으니, 어찌 나 개인의 감정의 좋고 나쁨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었으랴?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등하교 시간, 그 비좁은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님 뒤에 있는 철로 된 봉을 끌어안고 서서는 국어 선생님이 ‘잡서’이라고 욕하시던 책들을 읽었다.

나는 큰아버지 서재에서 <얼해화>, <육조단경>, <열미초당필기>와 <인간사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빌려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도 봤다. 여하튼 나는 책이란 책은 종류를 막론하고 온통 잡다한 것까지 아무 책이나 다 봤다.

첫 번째 월례 고사에서 네 과목이나 낙제했다.

부모님은 이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유급될 수 있다며 매우 엄하게 질책하시면서, 제발 그 잡서들을 밥 먹듯이 보지 말고 장래에 대한 포부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 상태라면 부모가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다.

나에게 무슨 포부 같은 게 있었으랴. 나는 그냥 책 읽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일 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비록 그렇긴 했지만, 내가 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는 죄송했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모든 선생님과 잘 협조하기로 했다. 들은 수업내용은 다 외웠고, 모든 수업을 다 들었으며, 수학 문제까지도 한 문제, 한 문제 무조건 외워버렸다.

세 번의 수학시험에서 나는 만점을 받았다.

수학 선생님은 내가 더는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믿지 않으셨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기에 쫓 머리가 안 좋았어야 맞았다.

수학 선생님은 내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100점 맞은 내 시험지를 내게 들이대면서 험박하듯이 따지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정행위요? 제 품격에는 절대 맞지 않는 행위예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하시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면서 냉소를 지었다. 그다음 시간, 선생님은 전 반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를 풀라고 시키고, 내게는 따로 들어 본 적도 없는 방정식 몇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건네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빵점을 맞았다.

전 반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은 먹물을 가득 찍은 붓을 든 채, 나를 자신이 분필로 그려놓은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서 똑바로 서게 했다. 그리고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빵점 좋아하지?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빵을 주지.”

그리고는 먹 줍을 가득 찍은 붓으로 내 두 눈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다. 먹 줍을 너무 많이 찍은 탓에 시커먼 먹물이 꼭 다문 입술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자, 이제 뒤로 돌아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선생님은 여전히 웃음을 띠고 말했다.

반의 모든 학생은 일제히 포복절도 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 수학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여전히 나를 모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 얼굴에 온통 그림을 그려 놓고도 직성이 안 풀렸는지, 선생님은 나더러 복도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다. 나는 강시^{僵尸}처럼 복도를 향해 걸어 나갔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처음에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가 싶더니 이내 손가락질하며 배꼽을 붙잡고 웃어댔다. 나는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교실로 돌아오자 한 마음씨 착한 친구가 나를 데리고 나가 얼굴을 씻게 했다. 나는 얼굴을 씻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한 동안, 나는 그 수학 선생님을 계속 죽이고 싶었다.

나는 평소처럼 버스에 몸을 맡기고 학교로 갔다. 며칠 동안은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들었다.

어느 날, ‘총통부’광장 맞은편에 서서 베이지색의 평평한 학교 지붕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거듭해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용기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나는 벌써 학교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교문을 한번 바라보고는 이내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가자!’

나는 가방을 멘 채로 버스를 타고 곧장 류장리공동묘지까지 갔다.

류장리의 가득한 흙무덤 속에 나의 우울한 학교생활도 묻어버렸다.

그때 내가 아는 묘역으로는 베이터우에 천지탕선생묘역과 양밍산공동묘지, 류장리공동묘지가 있었다. 지금의 시립 장례식장 일대에도 이름 없는 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이런 곳들의 단골손님이었다. 세상에 죽은 사람과 벗하는 것만큼 안전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 모두는 아주 상냥한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이젠 학교에 안 간다는 사실을 모르신 채, 매일 식대를 주셨다. 나는 밥을 사 먹지 않고 다 모았다. 세어보니 35위안이었다. 구링가^街의 중고서점(당시 노점을 펼치지 않았음)으로 가서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책을 샀다. 상, 하로 두 권으로 구성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삼일 결석하고, 하루 가서 앉아 있다가 선생님에게 눈도장이 찍히면 또다시 사나흘 사라지곤 했다.

그때 집에는 전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과 연락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책을 읽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해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으며 관심 있는 분야도 좀 더 넓어졌다. 내가 산 두 번째 책도 <구국^{九國} 혁명사>라고 하는 중고책이었다. 그 뒤로 나는 또 국어일보에 소개됐던 <1001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샀다. 그 책은 자연과학상식을 아이들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에단 프롬>이라는 책을 샀는데,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 후에는 거의 밥을 안 먹었고 남긴 돈은 책과 바뀌었다. 학교를 빼먹고 완전한 자유의 시간 속에서 나는, 그토록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그 시간은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다.

‘땡땡이’ 친 사건은 학교에서 집으로 편지를 부쳐오면서 끝내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때 나는 비록 내가 잘못된 건 맞지만 내가 그렇게 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만약 부모님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를 드신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1년 동안 휴학했다.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질책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나를 보시고 한숨만 쉬실 뿐 길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이듬해 개학할 때가 되자 부모님은 내가 다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억지로 나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은 부모의 생각과 좀 달랐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매우 불쌍했다. 매일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시면서 내가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애처로운 눈으로 보시고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곤 했다. 나는 온통 낯선 친구들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사정없이 외쳤다.

‘엄마, 엄마는 또 나를 사랑으로 옥죄이고야 마네요.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1교시만 듣고 다시 가방을 들고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때 나는 대담해져서 더는 무덤에 가지 않았다. 대놓고 성립도서관으로 간 다음 거기서 하루에 좋은 책을 한 권씩 값아 먹었다. 그렇게 늘 하교시간이 지나서도 집에 가는 것을 잊을 정도로 봤다.

부모님은 내기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셔야 드디어 마음을 비우시고 이 말썽꾸러기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교육하시기로 했다.

나의 ‘땡땡이’와 독서 유량은 그렇게 끝이 났다.

휴학하고 집에 있는 것이 결코 교육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때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고사를 보고 제2여고에 붙긴 했지만 사실 수학의 시련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언니는 천성이 워낙 음악을 좋아했기에 부모님과 진지한 상담을 통해 결국 성립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영예를 포기하고 타이베이 사범학교 음악과로 진로를 변경했다. 전공은 피아노, 부전공은 바이올린을 했다. 이로 인해 언니는 집을 떠나 학교에 살게 되었다. 비록 같은 타이베이시에 살았지만 나는 나의 ‘잡서’들을 같이 읽을 친구를 잃게 된 것이었다.

언니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나 홀로 침실 하나를 독점했다. 그때 나는 이미 휴학절차를 다 마쳤을 때였다. 앞으로 억지로 교실로 들어가야 하는 압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은 벌써 가벼웠다.

그해 세뱃돈으로 나는 대나무로 만든 예쁜 책장을 샀다. 내 방에 들여놓고 여기 저기 흩어져있던 몇십 권의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절반 이상이 아버지가 나한테 읽으라고 사주신 책들이었다.

매일 황혼 무렵이면, 아버지와 나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고문관지>를 앞에 펼쳐 놓았다. 아버지가 먼저 설명해주시고 외우라고 하시면 나는 외웠다. 신기하게도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압박이 없어지자 공부가 더 잘 됐다. 아버지는 고

문^{古文}교육만 담당하셨고 소설은 나 스스로 읽었다.

영문서로 아버지가 내게 읽어 주셨던 첫 번째 단편소설집은 <오 헨리 단편집>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다음 또 <작은 아씨들>, <소공자>라는 책들을 사주셨다. 그 후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머니가 시내에 다녀오실 때마다 영문 만화책을 구해다가 내게 주시곤 했다. 대화형식에 그림도 있어 아주 재미있고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이었다. 예를 들면, <립밴윅클>, <슬리피 할로의 전설>(중국에서는 <머리 없는 기사>라는 제목일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신데렐라>와 같은 것인데, 진즉에 중국어 번역본으로 봤던 책들이다. 영어원서를 같이 보면서 읽으니까 영어도 천천히 알게 됐다.

정말 휴학하고 집에 있으니 밖으로 나돌던 취미도 줄어들었다. 그때 많은 동년배 아이들이 학교엔 안 가고 패거리를 지어 몰려다녔다. 물론 나는 거기에는 끼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시내에 나갈 때마다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돈을 가지고 나가 책을 샀다. 서점에 가서 빌려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는 나의 지식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은 책 한 권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내용만 보고 말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다. 같은 책이라도 다시 한번 볼 때마다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나는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반복해서 다시 보곤 했다. 그것이 결국 내 어린 시절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된 것이다.

내가 매일 매일 책과 함께 하다 보니, 책들은 내용면에서 내게 깨우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서도 나를 매료시켰다. 방은 책이 가득해지면 보기에도 좋아진다. 이건 매우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나는 책이란 것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이므로, 책들로 방을 꾸미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나무 책장은 일 년이 지나자 이미 가득 차버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당시 창사가^街에 가서 책장을 주문해서 만들어 주셨다. 그 책장은 정말 아

름다웠다. 폭이 좁지만 세련된 것으로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다. 모두 5단이었고 아래위로 유리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책장은 오늘날까지 부모님 집에 남아 있다. 내 기념품인 셈이다.

열대여섯 살 즈음, 나는 완전히 책의 노예가 되었다. 내 방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틈이라곤 없었다. 방안은 방을 꾸미려고 쌓아놓은 쇠붙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외의 공간에도 책상 위로부터 시작해서 책상 아래, 침대 옆, 바닥, 옷장 등 구석구석 어디에나 잡다한 서적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내용도 가지각색이어서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각색이었으나, 그래도 문학관련 서적들이 좀 더 많았다.

타이완에서 산 책으로는 부족해서 홍콩으로 가서 책을 샀다. 홍콩도 모자라 다시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산 것들은 대부분은 미술 관련 화첩들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는 매해 받는 세뱃돈과 매주 받는 용돈을 몽땅 서점에 갖다 바쳤다.

내 장서들에 대해 친지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사람들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내게 와서 책을 빌려갔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구두쇠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책을 빌려갈 때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빌려주긴 하지만 꼭 빨리 돌려 달라고 신신당부 했다. 그러나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번은, 사촌오빠의 친구 중에 음악을 공부하는 왕귀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도 내게 책을 빌리러 왔다. 나는 사촌오빠 마오량과 사이가 아주 좋았으므로, 오빠의 친구들에게도 잘 하는 편이었다. 그때도 내 손으로 직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한 무더기 골랐다. 하도 많아서 노끈으로 묶어주기까지 했었는데 아마 허리까지 오는 높이였던 걸로 기억한다.

“다 읽고 나면 빨리 갖다 줘야 해.”

그가 내 책 몇십 권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밖에까지 쫓아 나갔다.

귀량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반차오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에 책도 당연히 반차오로 가져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차오가 홍수에 잠기면서 내 책도 잠겨 버렸다. 귀량은 나를 볼 면목이 없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사과를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 울어 버렸다. 그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귀량이 프랑스에 갈 때까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가 내게 진 책 빚 때문인지, 반평생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는 귀량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다. 듣자하니 이 년 전에 귀량이 프랑스인^s 아내와 함께 귀국했다고 했다. 그가 이 옛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무척이나 그립다.

사실 홍수가 내 책 몇십 권을 삼킨 것을 계기로 나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는 빌려주지 않으리라.

책을 빌려 간 사람 중에는 예외인 사람도 있었다. 내 친구 왕형은 빌려 간 책을 돌려 줄뿐만 아니라, 자신이 읽어본 것 중에 좋은 책 한두 권씩 꺼서 가져다주었다. 왕형 역시 음악을 전공했다. 그때 내가 그에게 책을 빌려주면서 우리는 막역한 친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낸다.

그때는 타이완 출판 시장이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좋은 책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성출판사’에서 소책자 총서를 내면서부터 비로소 청년 작가들의 저작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가 됐다. 당시 나는 소개된 책들을 한꺼번에 다 사들였다. 그때 랑스치우 선생이 번역한 <셰익스피어전집>도 나왔다. 그 책이 나오기 전에 내게 이미 ‘세계출판사’에서 낸 주성하오 선생의 번역본과 영어 원서가 있었다. 하지만 책의 노예였던 나는 세 권을 각각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완에서 영문서적의 복제판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타이완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 혜택을 꽤 많이 봤다.

일부 영문 철학 서적들은 과거에 매우 비쌌기 때문에 대량으로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불법 복제판이 있었기에 아주 적은 돈을 지급하고도 살 수 있었다.

책에 빠진 바보가 된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책 바보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나쁠 것이 없겠지만, 그건 그저 개인의 즐거움이고 취미일 뿐 사회와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역시 헛된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늘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허구한 날 책만 붙잡고 있다가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 나가서 기술이나 배우는 게 낫겠구나.”

나는 잘하는 거라고는 없었다. 아주 부끄럽게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집을 떠난 후 나는 졸지에 책이라곤 없는 사람이 되었다. 외국에서 내게 있는 거라곤 콧구멍만한 방과 몇 권의 교과서만 드문드문 꽂혀 있는 책장뿐이었다.

나는 책을 떠나 진짜 현실의 삶 속에 진입했다.

한 번 또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해 그 무거운 책들은 부지불식간에 내 영혼에, 내 사유에 녹아들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책들이 이미 나의 몸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것들과 같이 있든 없든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아탑 속에서 책을 읽으려면 조금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나를 에워싼 탑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확실하고도 간결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책을 통해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망상을 한 적이 없다. 그저 책을 읽다 보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유어에^{遊於藝}’라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거기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깨달음과 계시는 책

과 함께 어울리던 즐거움 속에서 온 것일 뿐 일말의 강요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호세와 나의 집에 있는 두 사람의 책을 합쳐도 1,600여 권밖에 안 된다. 부모님 집에 살 때 성황을 이루었던 책들에 비교하면 형편이 매우 쓸렁해진 것이다.

책장 속에 다시 점점 늘어나는 책을 바라보면 행복감과 씩씩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책을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나의 평범한 생활도 사랑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한 책들이 비로소 오늘의 깨달음과 평안함을 만들어 준 것이다. 내 마음속의 소리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전부야!’

혼란

황혼 무렵, 안개가 꺾다.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꺾다.

창밖에 전봇대 위에는 끈 떨어진 연이 매달려 있었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살랑 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뽕얀 안개 속에서 연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색이 얼마나 진한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노란 빛이었다. 안개는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불빛은 안개 속에서 몽롱하게 비치고 있었다.

날이 저물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날이 저물었어. 날이 저물었어. 그런데 불을 켤 수가 없어. 나는 암흑 속에 숨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 왜 도망가는 거지?’ 바람이 들어왔다. 선득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 노랫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또 왔어, 또 왔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가려 하네……윙윙 바람이 불어오고……좌좌 바닷물이 흐르네…….

나는 양손으로 휘휘 저으며 그 노랫소리를 떨쳐내려 했지만, 노래는 계속해서 날고 날아서 내 방으로 날아들어 왔다. 그 노랫소리는 나를 휘감고, 휘감았다…….

‘왔어, 끝끝내 오고야 말았어.’

나는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나는 발작하듯이 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했다.

“엄마! 난 제니가 아니야. 제발 난 제니가 아니라고 말해줘. 나는 제니가 아니야……아니야……정말이야. 정말 아니라고…….”

벌써 며칠이나 됐다. 며칠 동안, 나는 환상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제니의 초상>은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다. 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또렷하게 기억한 적이 없었다. 가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영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좋은 영화이고, 아름답고 슬프기도 하며 아주 여운이 남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다.

한 일 년 전쯤, 사촌오빠가 전화로 <제니의 초상>이 재상영된다는 소식을 알려 줄 때 내가 그 영화 좋은 영화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자 사촌오빠는 무심한 듯 제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가려 하네……윙윙 바람이 불어오고……좌좌 바닷물이 흐르네. 내가 가는 곳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이 멜로디, 이 멜로디……나 알아……나 들은 적 있어. 정말 들은 적 있던 말이야. 영화를 봤었기 때문이 아니야. 오래 전, 아주 오래 전에 어느 세계인지 모르겠지만……갈혀 있던 기억 한 조각이 있어. 오빠!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어딘가에, 그 바람이며, 바다며, 그 몽롱하고, 울적한 노랫소리……다그치지 마, 나도 뭐라고 설명 못하겠어. 단지 그 노래만, 그 노래만…….”

그날 밤, 나는 아팠다. 고열이 났으며 제니의 노랫소리가 물 밑 듯이 솟구쳐 오르고 또 솟구쳐 올랐다. 그것들은 나의 온몸에 스며들었고,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느낌에 강하게 짓눌렸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세계, 내 향수의 근원…….’

그때 몸이 회복되고 나서도 한 동안 나는 안정을 취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은

가능한 한 수면을 취하게 했고, 내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으며, 미미한 자극도 주지 않았다. 천천히 걸모습은 편안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라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화구를 챙겨서 스케치하러 나갔다. 어머니가 기척을 느끼시고 쫓아 나오시더니, 내 옷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씀하셨다.

“메이메이, 너 몸이 아직 안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바람 맞으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들어가자! 자, 착하지…….”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리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가게 해줘……가게 해줘 제발……미워……다들 미워…….”

나는 너무 갑갑했다. 너무 갑갑해서 숨이 막혀 터질 것만 같았다.

‘나 갑갑해, 너무 갑갑해…….’

나는 화구가 담긴 상자를 들고 바람처럼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논두렁에 이젤을 내려놓고 앉았다. 눈길이 닿는 대로 주위를 둘러보니 드넓은 논과 저 멀리 산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다. 나는 너무 추워 재킷의 깃을 세워 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멋대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가 몰려왔다. 깨끗한 캔버스에 마주 앉았지만 나는 아무 것도 그릴 수 없었다. 그저 멍하게 앉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순간부터 바람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 사이에서 고요함마저 감돌았다. 아주 천천히, 멀리서 바람 소리 대신 음악 소리가 점점 가까이 날아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보리밭에 보리처럼 일렁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마침내 그것들은 나를 에워쌌고, 내 귓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가려 하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우두커니 섰다. 극도로 밀려오는 공포에 온몸이 마비 되어버렸다. 이젤을 넘어뜨리면서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오! 제니가 왔어! 제니가 왔어!’

나는 달렸다. 달리고 달려 그 닫혀 있는 세계를 향해 뛰어들어갔다. 주위는 온통 암흑 세상이었고, 제니의 우울하고 비통하며 사람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내게는 아무 것도 없다. 나는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아무렇게나 마구 잡으며 앞으로 달려갔다. 주위는 온통 암흑 세상이었다. 나는 찾고 있었다. 처음부터 잃어버린 적 없는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찾고 있었다……암흑뿐이었다. 만물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니, 제니 외에……나는 끝없이 달렸다…….

그날 밤 나는 한 농부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다. 눈발 작은 도랑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다. 안 그래도 집에서는 내가 돌아오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가던 참이었다. 어머니가 내 물골을 보시더니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듯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얘야,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된 거니!”

나는 묵묵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 엄마, 나는 그냥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찾고 있었다고요……’

시름시름 앓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 떼쓰면서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일어났다. 대신 의사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는 나와 간단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집에서 정물을 그리고, 책 읽고, 레코드 듣기만 하고 다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낫다고 했다. ‘내가 병이 나?’ 앞으로 너무 많은 생각도 하지 말며, 책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안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울어서 안 된다고 하셨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다…….

집에 틀어박힌 지 한 달이 다 되는 동안, 딱 한 번 밖에 나간 게 고작이다. 그 날도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타이완대학병원으로 가야 해서 나온 것이다. 내 병을 고쳐줄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하셨다. 어머니와 함께 걷고 걸어서 정신과 입구에 도착하자 나는 그만 너무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럼……나……?’

어머니는 물러나셨고 나와 의사 선생님 둘만 남았다. 그는 나를 친구 대하듯 물었다.

“너…그림 그리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정하는 척하는 그 의사가 너무 혐오스러웠다. 제니와 나의 관계는 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또 전문가 티를 내면서 내게 웃음을 띠고 물었다.

“그럼 혹시 그런 그림 그리니? 음……그 뭐라고 부르더라?……이해하기 어려운……인상파인가?”

나는 정말 더는 들어 줄 수가 없어 언짢은 말투로 말했다.

“인상파는 19세기 학파예요. 지금의 추상파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잘 알지 못하면서 절 치료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제니와 나의 관계는 병적인 관계가 아니야. 병이 아니야. 나는 알아. 명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단지 체질이 허약할 뿐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제니는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찾아왔다. 깊은 밤 중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비가 오는 저녁에, 희미한 여명에, 울적한 오후에……그녀는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왔다. 그녀의 노래와 함께, 그리고 그녀 특유의 분위기를 타고 왔다. 한 번

또 한 번, 나는 공허한 세계로 떨어졌고, 나는 그 안에서 헐떡거리고, 내달리고, 찾고……또 찾고……질주하고…….

깨어나면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그렇게 제니의 노랫소리에 길을 잃었고, 실의에 빠져 광기를 부리고 있음을 느꼈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을 느꼈다. 그렇지만 나는 도리어 그 찰나의 느낌에, 일종의 잊을 수 없는 쾌락과 일종의 극단적으로 모순된 슬픔을 체험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이미 그 세계에 도취되어 빠져나올 수 없었다. 비록 두렵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로 설명 할 수 없는 그 쾌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밤낮으로 나는 도망을 다녔고, 그리고 찾아 헤맸다. 나는 이제 제니와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주사를 맞는 날이었다. 저녁시간, 나는 주사약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곧바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 주시던 의사 선생님, 장 아저씨에게로 갔다. 아저씨는 정답게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메이메이, 몸이 너무 야위었구나!”

나는 지은 죄가 탄로 난 사람처럼 당황해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항상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수면제도 소용이 없어요…….”

장 아저씨는 내 고개를 올리시더니 부드럽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행복하지 않구나. 왜일까?”

“제가요? 그래 보이나요? 아저씨, 아저씨가 잘못 보신 거예요. 저 행복해요. 저 행복해요……정말이에요……제가 행복하지 않다니요. 참 웃음이 나오네요. 제니가 와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전 만족해요……비록 제가 거기서 달리고, 또 달리긴

하지만 만족해요……진짜예요……고통스럽냐고요? 조금은요……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저……오, 세상에! 저를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아요! 아저씨, 저 정말 아무 병이 없어요. 멀쩡해요……아주 좋다고요…….”

나는 내가 지금 히스테릭하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게다가 눈물까지 양쪽 뺨에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나는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계속해서 말을 했다. 아저씨는 말 없이 내 손을 잡으시고 집에 데려다주셨다. 오는 길에 아저씨는 내게 최면 걸 듯이 말씀하셨다.

“메이메이야, 넌 아파, 아픈 상태란다. 제니는 없어, 제니 같은 건 없어. 넌 안정이 필요해. 안정을 취해야 해……넌 지금 아파…….”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다. 심리치료, 진정제, 넘치는 사랑도 소용이 없었다. 제니는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었고, 나는 제니가 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제니가 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거둬서 발버둥 치며 말했다. ‘제니!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지자!’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몽롱하고 공허한 목소리로 나를 향해 노래를 불렀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가려하네……윙윙 바람이 불어오고 쇠쇠 바닷물이 흐르네. 내가 가는 곳엔……모든 사람이 가려하네…….

아! 제니! 나야, 내가 널 받아줄게.

그렇게 제니는 바람처럼 나를 덮쳤다. 나도 또 한 번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그녀의 세계로 이끌려 갔다. 그 처량하고 쓸쓸하며, 공허하여 아무 것도 없는 세계 속으로. 나는 또 미친 듯이 달렸고……찾았으며……무너지고 자학하는 만족감에 취해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려
하네……윙윙 바람이 불어오고……샤샤 바닷물이 흐르네……내가 가는 곳엔……
모든 사람이 가려 하네…….*

제니! 제니! 나야, 내가 널 받아 줄게…….

상장

사실 그날 나는 영화 보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따로 할 일이 있어 나가는 김에 영화를 보고 오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영화관에 간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꼭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무슨 일로 나가는지, 가는 곳, 누구와 같이 가는지, 대략 몇 시에 돌아올 건지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가야 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셨기 때문에 어스름해질 때면 항상 집에 계셨다. 시먼딩에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 혼자 간다고 하자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당시 나와 아버지는 부녀 사이라도 줄곧 불편하고 어색한 사이였다. 평소에 말도 많이 나누지 않았던 터라 같이 가자고 하시자 더 불편했다. 그해 나는 열아홉 살이었고, 아버지 연세는 마흔일곱이셨다.

가려고 했던 시먼딩에는 영화관 말고도 화랑이 있었다. 그날 사실 ‘하이텐화랑’에 갈 계획이었다.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영화 한 편을 볼 생각이었다.

그 당시 화랑에서는 입선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 몰래 거기에 출품했었는데, 입선됐다는 소식이 와서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때까지 이미 열 번이 넘게 합동전시에 참여했었다. 그 중 타이완성 미술 전시회는 두 번 다 중국화를 출품하여 심사를 받았다. 서양화는 이번 입선이 처음이다. 집에는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모시고 시먼딩에 나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함께 화랑으로 먼저 갔다. ‘하이텐화랑’은 아마 그 당시 완귀극장 맞은편에 있는 큰 건물에 있었던 것 같다.

전시작품은 매우 많았다. 유화 부문에서 나는 두 작품이 입선됐다. 입구로 들어가서 방명록을 남기는 곳에 놓인 금, 은, 동 등 상패를 보고 나서야 나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방명록에 사인하시고 매우 빠르게 전시회장을 한 바퀴 돌아 보셨다. 그렇게 반 정도를 보셨을 때, 한 쪽의 유화 아래쪽에 적힌 내 이름을 발견하시고는 몹시 놀라시며 내게로 돌아오시면서 물으셨다.

“메이메이, 네 그림이 여기 걸려 있잖아!”

나는 약간 쑥스러워 입술을 다문 채로 살짝 미소 짓고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버지와 내가 다른 유화작품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내 이름 옆에 ‘동상’이라고 표시된 빨간 띠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으니 정말 기뻐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렇게도 깊은 계곡이 놓여있어, 오랫동안 서로 교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웃지도 않았다. 평소에 아버지는 활발한 성격은 아니지만 내면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셨다. 이번에 아버지는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 좌로 보고 우로 보시다가 결국 방명록 남기는 곳에 있는 직원에게로 가서 저기 동상에 입상된 유화를 살 수 없냐고 물으셨다. 그 직원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언제 상을 가져갈 수 있는지, 시상식 같은 것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물으시자 직원은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는 입상한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오래 서 계셨다. 그리고 내게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병瓶은 왜 길어진 거야? 이 아버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줄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입을 열 수 있었겠는가. 그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쁨에 찬 얼굴을 하시는 바람에, 전시장의 다

른 관람객들이 상 받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곧 다 알아채게 될 상황이었다. 정말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전시장을 떠날 때 아버지는 또다시 데스크 직원에게로 가서서 언제쯤 동상 상패를 가져갈 수 있냐고 물으셨다. 그 직원은 아주 무덤덤하게 전시가 끝나면 가져갈 수 있다고 답했다.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는 한숨을 내 쉬셨다. 오늘 상패를 가져갈 수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괜찮아! 시상식 날 아빠가 사진을 찍어 주면 되지.”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전화로 어머니께 메이메이의 그림이 입선된 것은 물론 입상까지 됐다고 말씀하시고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을 것이며, 메이메이가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 영화 <클레오파트라>까지 보고 들어가겠다고 하셨다.

그때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한 외출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기에 부모님은 내 장래만 생각하면 늘 무거운 바위에 짓눌리는 듯 한 심정이셨다. 게다가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입을 꼭 닫아 버리고 살았으니 오죽했겠는가. 최근 몇 년간 부모님이 나 때문에 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남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곤 했다.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동물처럼…….

길을 건너면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주셨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치과에 가던 때가 생각났다. 그런 따스함이 익숙지 않아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 하마터면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수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신 적이 없었다.

식당에 들어가서야 겨우 아버지 손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마주 앉았다.

“닭고기 옥수수죽 제일 좋아하지? 깐 새우볶음도 주문할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앞에서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평소에 어머니가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셨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엄마도 없이 십구 년 만에 처음 홀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나를 닮은 사람과 같이 앉아 있다니……정말 불편하기 이룰데 없었다.

“너 그거 아니? 아빠의 꿈이 변호사가 아니라 운동선수나 예술가였다는 거? 당시 네 할아버지가 아빠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바로 기숙학교에 들여보내 살게 했는데, 영국 선생님들한테 배웠지.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 쪽 외롭게 다녔단다.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었지. 그저 어른이 법을 공부하라고 해서 그냥 했었던단다…….”

아버지는 내게 반찬을 집어 주시고 죽 공기를 내놓았다.

“요즘 너희 시대는 달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 엄마에게 꼭 말해야 해. 알겠지?”

나는 노란빛깔의 죽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보기에 네가 앞으로 미술 분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어. 다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네가 결심을 내리고 평생 화가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는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죽을 먹을 수도 없었다. 아버지가 아직 손가락을 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음악도 좋아. 요즘 어디까지 연습했어?”

아버지가 또 물으셨다. 목소리가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너무 긴장한 탓에 계속 속이 좋지 않아 토할 것 같았다.

“쇼팽의 야상곡이요.”

나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책은 너무 많이 읽지 말거라. 그러다 눈이 다 나빠지겠어. 한 가지라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해야 잘 할 수 있는 법이야. 그리고 너 운동이 너무 부족해. 테니스는 왜 치다가 안치는 거니?”

그 한 끼 식사하는 동안 아버지는 더 이상 자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제야 나는 장장 칠 년을 휴학하는 동안 아버지의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작은 상패 하나가 또 어떤 희망을 가져다주었기에 나만 좋다고 하면 아빠는 다 허락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

그때 상을 받은 이후 아버지는 전시회 포스터를 잘 간수했다가 내 이름이 있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고 빨간 펜으로 ‘동상’이라고 표기하셨다. 그리고 그 종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속에 넣어 두셨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계셨다. 큰 남동생이 유치원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것까지도 다 수집해 두셨다.

전시회가 끝나고 다음 날 나는 그림을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갔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웠지만, 사회자에게로 가서 ‘동상패’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다. 그녀는 세심한 성격은 아닌 듯했다. 대충 손으로 종이 상자를 뒤척이더니 동상패 하나를 꺼내더니 “자, 가져가요!”라고 하며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더는 신경도 쓰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는 뭘지 모르는 리스트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상패가 집으로 왔다. 아버지는 그것을 닦고 또 닦아서 피아노 위에 진열해 놓았다. 손님이라도 오면 둘째 딸이 받은 상이라고 꼭 설명하셨다.

상을 받은 이후 나는 그 당시의 ‘문화대학’ 청강생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청강생은 학비 내고, 등록하고, 시험을 보고 성적표가 나오는 것까지 다 똑같지만 딱 하나, 학적이 없었다.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 부모님도 같이 가자고 나서셨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가 학교가 있는 양명산까지 상패를 가지고 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다.

학교 접견실에서 나는 누군가의 지도도 받은 적이 없는 중국화와 유화 몇 점, 그리고 공식 발표됐던 글 두 편을 펼쳐 보았다. 성적표를 대신해서 가져간 것이다. 교무주임과 몇 분의 선생님들이 보시고는 “그럼 당연히 미술과에 들어가야겠네. 아니면 국문과에 들어가지요.”

나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쳐다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애걸하시는 듯 한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화가가 되라고 하신다. 내게 화가가 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화가가 되라고…….’

지원서를 작성하려는데 세 개의 빈칸이 크게 내 눈에 비쳐 왔다.

미술과, 미술과, 미술과…….

‘미술과’라는 거대하고도 이름 모를 짐승이 나를 씹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건 내가 화가가 되길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었다. 부모의 눈은 커다란 짐승이 되어 내 어깨를 올라타고 매일매일 아이가 기술을 배워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모두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퐁퐁퐁 빈칸을 채웠다. 철. 학. 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아버지는 땀을 닦으시면서 말 씀하셨다.

“철학은 매우 심오한 학문이야! 메이메이, 해낼 수 있겠어? 해내면 또 뭐할 거 니?”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으로 콧등과 눈을 닦으시면서 또 말씀하셨다.

“됐다! 됐다! 우리 메이메이 마침내 대학교에 들어가야 말았어. 오늘 날씨 참 덥다.”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나는 늘 비가 오는 아침이면 절로 잠에서 깨곤 한다. 창밖은 늘 그렇듯 온통 어둑한 것이 여명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바람도 없고 새의 지저귀도 없다. 뒷마당의 어린나무들은 내리는 빗속에 고요하게 서있었고 어느 창문으로 내다보아도 빗물이 흘러내고 있었다. 빗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무렵은 모든 것이 정지^{靜止} 돼 있었다.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면서 오늘 시험을 생각하다가 그리운 페이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또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리고는 나는 무심코 이 계절을 또 저주했다.

어젯밤 방에 책상 스탠드가 고장이 났다. 나는 이를 핑계 삼아 일찍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필기한 노트를 건드리기조차 싫었고 교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보기 싫었다. 그 시간,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서부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운 나는 가끔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대사, 총소리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느껴졌다. 그 순간만큼 시험은 하나도 중요치 않았다.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았고, 내일도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영원히 이 암흑 속에 누워 있는 한, 페이가 내일 나를 찾아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이 계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 괜찮아진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기서 헤어진다고 해도 그건 비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뒤흔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매번 아침, 잠에서 깬 때면 나는 항상 찬찬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즐긴다. 욕실 거울 속에 보이는 나는 낯선 존재다. 아주 기이한 시간이다. 금방 일어났을 때의 내 마음은 무방비 상태이고, 거울 속 자신도 무방비 상태이다. 나는 손을 물에 담근 채 거울 속의 나 자신을 응시하면서 이상하게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온통 페이만을 갈망하는 여자애일 뿐이었다. 나는 자신을 응시하면서 페이의 눈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는 자주 이렇게 일말의 저항도 없이 기이한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곤 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나 어머니

가 다른 욕실에서 양치하고 세수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갑자기 내가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열린 나와 꿀물 한 컵을 들고 나고 나서 어지럽게 널려있던 노트들을 챙기고 집을 나선다.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보니 신을 신발이 마뜩하지 않았다. 빗길을 조심해서 걷지 못한 탓에 다른 신발은 다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없이 갈색 샌들을 신고 나왔다. 대단찮은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내 기분은 상상했던 것만큼 우울하지 않았다. 샌들을 신고 이 아침에 비에 젖은 길을 걷고 있자니 확실히 기분 좋았다. 나는 삼륜차에 앉아 정류장까지 가고 있었다. 하늘은 시각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차창 밖에 모든 것은 비로 인해 고요했으며 딱히 아침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다. 몇몇 남자아이들이 물웅덩이에서 종이배를 띄우며 놀고 있었고, 쓰레기 줍는 노인은 기운 없이 인도 변에서 있었다. 거리의 사람과 차들은 이 어스름한 도시에서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기분은 한없이 축축 처지기만 했다. 이 얼마나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날인가.

차에서 내려 차비를 내다가 필기 노트를 떨어뜨렸다. 내가 몸을 굽혀 진창에서 노트를 주우려는데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페이가 정류장에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른다. 우리는 각자 등교하고 각자 하교했다. 둘 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 안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젠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페이를 놓지 못하는 내 마음과 지난날 그가 내게 가져다 준 커다란 추억들은, 내 가슴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했고 더욱 그를 그리워하게 했다. 빗속의 나날은 항상 젖어 있다. 비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항상 이 흐르는 시간을 젖게 했다. 오늘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차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과 학생이라도 상관없으니 아무나 붙들고 말을 걸고 싶었다. 줄을 서 있는 학생들 중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고개만 들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나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이내 머리를 필기 노트에 틀어박았다. 보아하니 이번 기말고사가 모두에게서 여유를 뺏어 간 모양이다. 나는 줄 맨 끝에 가서 섰다.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매일 아침 가졌던 희망은 늘 허사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잊혀 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여태껏 이렇게 마음이 매질을 당한 적이 없었

다. 페이가 없는 이곳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정류장의 모든 형광등은 켜져 있었으며 그 차가운 불빛은 오가는 승객들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담배 연기와 비에 젖은 장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정류장의 표지판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이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오늘은 정말 사람을 짜증이 나고 축축 처지게 하는 날임을 느꼈다.

삼 개월도 더 된 일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끝없는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때가 마침 학기등록을 하는 날이었다. 1학기가 한겨울 추위 속에 끝이 나고 우리는 열흘 후면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했다. 그날 내가 등록을 마쳤을 때는 겨우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다. 나는 축구장을 마주한 돌계단에 앉아서 무용과 학생들이 몸에 달라붙은 예쁜 무용복을 입고 축구장에서 춤 연습 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 개교기념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내 등 뒤에서 학교 사환 아저씨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노란색 페인트를 창틀에 칠하고 있었다. 행진곡이 한 번씩 큰 소리로 울려 퍼질 때마다 무용과 학생들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다. 그때 공기 중에는 경쾌한 음악 소리와 페인트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산이 사방으로 낮게 둘러싸고 있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푸른 하늘은 티 없이 맑았고, 햇살은 공기 중에 느릿느릿 흐르고 있었다. 나 홀로 그렇게 앉아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정말 활기 넘치고 편안한 휴일이라고 느끼고는 열심히 휴일을 즐겼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행복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 후 개학하고 나서 우리는 때로 수업에 전념하기도 했지만, 또 가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어떤 날은 수업을 땡땡이치고 산에 오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도서관으로 가 정신 없이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를 찾기도 했다.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고 이어서 비도 함께 찾아 왔다. 그리고 그 비는 지금까지 멎지 않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비를 반겼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 싫증이 났다. 나중에는 급기야 저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맑은 날 햇빛 아래서 등교하는 일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대략 20분 정도다. 학교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온몸이 푹 젖은 상태였다. 나는 우비를 챙겨 다니기 싫어했다. 그래서 늘 이 모양으로 다녔다. 강의실은 5층 옥상 모서리에 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

다. 강의실에는 몇몇 학생들만 먼저 와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강의실로 들어가 노트를 펼쳐 놓고는 냇 놓고 의자에 기대앉았다. 오늘 페이가 날 찾아올까? 그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서로 그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페이, 네가 이렇게 날 보러 오지 않으면 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페이, 이제는 내가 널 찾아가야 할까? 페이, 너는 오지 않겠지. 오지 않을 거야. 내 이 꼴을 좀 봐. 나 매일같이 기다림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말이야….

강의실 사방의 창문은 전부 열려 있었다. 비에 젖은 커튼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창밖에 하늘이 맑아지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건만, 하늘은 늘 차갑게 우리의 바람을 외면했다. 그렇게 모두의 희망은 맥 없이 꺾여 버렸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햇빛을 볼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리르와 창옌이 같이 강의실로 들어왔다. 그때 이미 시험 시작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다. 리르는 강의실에만 들어오면 사람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느릿느릿 걸어들어 왔다. 손에는 달랑 볼펜 하나를 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갓파, 뭐 이렇게 괴상한 신발을 신고 왔냐?” 갓파는 일본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하동^{河童}>의 일본어 발음인데, 비의 계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불렀다.

“신발이 없어서 신었어. 구두, 운동화 다 젖어서 신을 게 없어서 신고 왔다. 왜, 불만 있어?”

“샌들에 스트립이 너무 없잖아. 멀리서 보고 깜짝 놀랐네. 아예 맨발로 학교 오지 그랬냐?”

리르는 내 신발을 보면서 해피망측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원래 이런 디자인 좋아하거든. 이건 해피 슈즈라고.”

“이런 지랄 맞은 날씨에 해피는 얼어 죽을?”

“그래 나 사실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리르, 나한테 신경 꺼줄래?”

“바보야, 리르가 너 시험 때문에 긴장할까 봐 일부러 헛소리하고 있는 거잖아.”

창옌이 옆에 있다가 말했다.

“긴장 같은 거 안 해. 기분이 안 좋은 건 맞아. 매번 시험 때마다 정말 굴욕이야.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그리고 꼭 시험지를 갖다 대면서 시험을 본단 말이야.”

말하다 보니 너무 흥분해 있었다.

“갓파, 그렇게 심각해?”

창옌이 근심 어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기랄, 그냥 해본 말이야. 심각은 무슨.”

거친 말을 던져놓고는 내가 먼저 웃었다.

나는 이유 없는 권태에 빠진 것이다. 이 순간의 내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 페이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루, 또 하루의 기다림은 나 자신을 한 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정말 그렇게도 견디기 힘든 상태였다. 나는 크고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 가운데서 위안을 얻지 못하고 희망을 볼 수 없었다. 이런 감정은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이어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 모래 언덕을 이루면서, 연일 내리는 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휩쓸려 내렸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른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이번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철학 학파에 대해서 평론하고 이천 자 이내로 자신의 의견을 적으면 통과되는 문제였다. 사실 이런 문제에 답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까 왜 무의식중에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꼼꼼하게 답안지를 채우고 주위를 둘러보니 리르가 얼굴을 묻고 열심히 답을 써 내려가고

있는 옆자리의 창연을 툭툭 치면서 답을 구했다. 창연이 작은 소리로 알려주자 리르의 바로 얼굴이 활짝 피더니 날아갈 듯 펜을 움직이며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옆에서 그 장면을 본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리르의 즐거움은 언제나 그렇듯 작은 것에 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나는 마음으로 페이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실망감 후에 찾아오는 처참한 기분이 가슴 속에 차올랐다. 주위는 빗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시험지를 덮고 발을 앞에 앉은 학생의 의자에 올려놓고 가볍게 흔들었다. 젊은 강사가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다 끝냈어? 끝냈으면 제출하게.”

“이런 주제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아요. 다만 글자 수만 채울 뿐이죠.”

강사는 내 말을 듣고는 웃음을 지으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그다음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 쓴 답안지를 왜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영원히 알지 못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일말의 인내심도 없었다. 비는 이상하리만큼 무로하게 내렸다. 나는 답안지 뒷면에 아무렇게나 끼적였다.

숲속의 클리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다. 태양신 아폴론을 사랑해 후에 태양만 바라보다 해바라기로 변했다. *빛속의 클리티에, 당신의 태양은 어디로 갔나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그저 시간을 끌고 끌며 강의실 밖에 페이지의 그림자가 예전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십오분이 지났다. 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밖에 옥상으로 나갔다. 그제야 문득 종일 수업이 없다는 게 생각이 났다. 우리는 이미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건물이 비에 덮여 있었고 끝없는 공허함이 교차하여 주위를 휘감고 있었다. 맞은편 기숙사의 창문은 그 빛속에도 전부 열려 있었고, 평소 여학생들에게 장난을 치던 남학생들도 보이지 않았다. 공사 중 철거하지 않은 대나무 지지대들만 소리

없이 창문가에 세워져 있었다. 비는 천만년을 내렸다. 나는 맑고 맑은 하늘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뽕송뽕송 마른 나의 깨끗한 신발을 본지가 언제인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으며, 어떻게 즐거운 발걸음으로 쏟아지는 햇빛 아래를 걸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여름은 햇빛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도리어 수많은 불편함을 담은 계절을 가져다주었다. 강의실에서는 사람들이 속속 답안지를 내고 있었다. 그 강사가 천천히 나왔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비를 내다보았다.

“시험 다 봤으면 집에 가도 돼. 우리 수업은 이젠 끝 난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 기다려?”

“아니요. 집에 갈 거예요.” 나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나서 빗속에서 사색에 잠겼다.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게 이젠 하루 이틀이 아니야. 페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가 왜 그깟 작은 일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건지 제발 좀 말해줘. 나는 네가 와서 나와 함께 내려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말이야.

이때 리르와 웨이신이 함께 나왔다. 웨이신은 일주일 전에야 학교에 돌아왔다.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거의 한 달 동안 고향에 갔었다.

“시험 잘 봤어?”

내가 웨이신에게 물었다. 평소에 웨이신은 타이베이 고모네 집에서 지낸다. 가끔 우리는 함께 학교에서 내려갔다.

“60점은 될 걸. 아마 문제없을 거야.” 웨이신은 우울한 아이다. 나이도 우리보다 어렸으며 확실히 외로워 보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갓파, 너 연극과 그 자식 기다리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 빗속에서 궁상 떨고 있지 않을 테지.” 리르가 물웅덩이를 건너뛰며 소리 질렀다.

“누가 네 자식이야? 그렇게 부르지 마.”

“그래, 알았다. 감독님이라고 할까? 페이감독님, 갓파가 지금 감독님 보고 싶대요.”

리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너무 당혹스러웠다.

“리르, 너 나대지 마.” 웨이신이 크게 웃으면서 만류했다.

“갓파, 네가 강의실 밖에 서서 비를 맞고 있으니까 내가 하도 신경 쓰여서 하마 터면 답지 못 쓸 뻔했잖아.”

리르는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자식이었다.

“됐거든. 내가 못 쓸 뻔했다고? 창엔 꺼 다 보고 썼으면서.”

“억올해. 맹세하건대 나도 공부 좀 했다고.”

리르는 화가 난 듯 한 얼굴로 귀엽게 인상 쓰며 소리쳤다. 정말이지 영원히 근심이라고는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같다.

웨이신은 비를 응시할 뿐 말이 없었다.

“웨이신, 방학에 뭐 할 거야? 군대는 안 갈 거고.” 내가 물었다.

“고향으로 가야지.”

“전과 해. 이쪽 전공 하지 마. 너 몸도 안 좋잖아.”

“갓파, 난 정말이지 어떤 전공도 싫어.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내 과수원이나 지 키면서 자유롭게 시골 사람으로 살고 싶어.”

“지식은 원래 쓸 데가 없는 거야.”

“됐어, 됐어. 웨이신, 운이 안 좋아서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너희 집 영감님, 너 대학 보낸 거 가지고 조상한테 떳떳한 일을 한 줄로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병이나 얻었는걸.”

리르가 옆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웨이신은 시종 선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어렸다.

나는 한쪽 발로 리르에게 물을 튕겨 입을 막으려 했다. 그때 웨이신이 이미 소

리 없이 계단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리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물웅덩이에 서 있었다.

“웨이신, 우리랑 같이 가. 리르 빨리 와. 재 몸 안 좋은 거 알면서 꼭 신경을 건드려야겠니?”

나는 조용히 리르를 끌고 웨이신 뒤를 따라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오늘도 페이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고 있어. 지금은 네 강의실을 지나고 있는 중이야. 페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도 네가 그리워. 그러니까 페이, 우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왜 이리도 가까이 있는데 볼 수 없는 거니…….

리르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는 알아요

한 줄기 햇빛이라는 넓은 길을

당신이 거기서 나의 아명을 부르면

네, 어머니

당신께로 갑니다

십 리밖에 보리밭으로

……

“야, 갓파, 이 노래, 연극과 그 자식이 만든 노래 맞지? 리르가 아주 좋아한다고 전해 줘.”

여기는 보리밭도, 햇빛도 없고 즐거운 유랑도 없다. 우리는 지금 비에 젖은 계절

을 걷고 있다. 한 번도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곳을 향해 간 적이 없었고,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 행복은 늘 우리와 요원했다.

건물 아래로 내려오니 빗속에 캠퍼스는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다 같이 입구에 서서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순간만큼은 리르도 조용했다. 그저 멍청하게 낫 나간 사람처럼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빗방울은 아침에 학교에 올라올 때보다 훨씬 굵어졌다.

“이 비는 따뜻한 비가 아니야.” 웨이신이 천천히 말했다.

“해가 나기를 기다리자.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어.”

나는 고개 돌려 그를 격려하며 웃어 보였지만 정작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됐어. 뭘 기다려. 우리 같이 빗속을 뛰어가자. 죽기 살기로 뛰어서 정류장까지 가는 거야. 잭파, 어때? 할래?”

“우린 안 뛰어갈 거야. 걸어서 갈 거야.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마치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그러던지. 잭파, 가끔 넌 너무 진지해. 너 혹시 빗속을 뛰어가면 비한테 지기라도 할까봐 그래? 바보.”

“나 이젠 자존심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게 내버려 두지 그래?”

“잭파, 너 방학엔 뭐할 거야?” 웨이신이 내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생각하지 않을래. 그날은 오지 않을 거니까. 난 앞으로는 방학에 뭘 할 거라는 둥 계획 같은 거 할 수 없을 거야. 정말 모르겠거든.”

해마다 여름 방학은 늘 햇살 넘치는 맑은 날과 함께였다. 내내 쉬지 않고 내리는 비를 보면서 방학에 대해 뭘 생각할 수 있겠는가. 비록 다음 주면 방학이 오지만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서 빗방울이 처마 밑에까지 처

들어왔다. 내 머리와 양쪽 어깨에도 비가 흠뻑 젖었다. 바닥으로 흘러들어온 물에 샌들이 젖으면서 발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가워졌다. 물이 내 발아래로 모이고, 내 몸에도 비가 떨어졌다. 6월의 비지만, 차가운 게 이른 봄 같았다.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비가 내렸지만 나를 적신 적이 없다. 내 마음 속 비의 계절이 찾아와 내 자신을 적셨다.

“우리 가자. 누구 기다려?” 웨이신이 재촉했다.

“기다리긴, 가자.”

나, 리르, 웨이신은 초여름의 아침,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빗속에 몸을 맡겼다. 그 어떤 것도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었다. 빗방울은 무겁게 온몸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왔다. 나는 다른 생각을 들지 않았다. 다만 내리는 것은 비이며, 나는 지금 그 빗속을 걷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작은 수풀에 도착할 무렵 비는 더 크게 내렸다. 웨이신은 시종 고개를 숙이고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떨어져 내리는 빗물에 몸을 맡겼다. 리르는 불이 붙은 건지 알 수 없는 담배를 입에 물고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을 휘휘 저으며 불분명하지만 열을 내며 욕을 했다. 제기랄, 빌어먹을. 그 모습이 비에 대한 환호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참을 걸은 것 같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걸은 것 같았다. 나는 태어나서 이처럼 오랫동안 빗속을 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주위에 넘치는 것이 빗물만이 아니었다. 마치 강물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빗물이 계속 흘러내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나는 손짓으로 리르에게 책을 들게 하고 한 손으로는 얼굴을 닦아 내렸다. 나는 울고 있었다. 이 영원한 공허함의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빗속에서 소용돌이 쳤고, 강물에 떠 있었다. 아주 고요하고 큰 강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페이,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 빨리. 나 잠겨 죽을 것 같은 말이야.

리르가 옆에서 나를 힘껏 밀었다. 웨이신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온몸은 푹 젖어

있었다.

“갓파, 왜 소리를 질러? 우리 다 놀랬잖아. 빨리 가자. 더 이상 비 맞으면 안 되겠어. 너 괜찮은 거지?”

“리르, 나 괜찮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

나는 그들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웨이신은 그 와중에도 젖지 않은 손수건을 꺼내서 내게 주며 얼굴을 닦으라고 했다. 우리는 도로까지 걸어왔다. 정류장도 조금만 더 가면 보였다. 나는 눈앞의 내리는 비를 응시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비야, 어디 한번 내려 봐라. 언제까지든지 내려 봐.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분명히 멎는 날이 있을 테니까.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는 비가 그치면, 대지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빛날 거야.’

나는 다시는 갓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강물 속에 잠긴 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 비의 계절은 곧 지나갈 것이다. 햇살 가득한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를 들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한 아침이라. 그때가 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다시 한 번 나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햇살을 보면서, 내게 반복해서 비의 계절은 지나갔고,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깨끗하고 뽕송뽕송한 노란 운동화를 신고 온통 햇살로 가득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햇살을 봐. 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아.”

